



©오경순

하나로 이어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40호



-learning

인터넷 성경학교 학습과정

'이러닝학습'이란?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이러닝학습'은
인터넷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닝학습'을 통한 성경 공부는

- ①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 어디에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하느님 말씀을 접하여
보다 편리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한 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학기 중에는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복습할 수 있습니다.
- ③ 학습도우미인 튜터의 개인적 동반을 받으며
성경 공부에 필요한 도움과 삶의 목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④ 강사(신부님, 수녀님)의 강의와 요약 정리된
강의자료를 통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학습'은 성경 말씀을 보다 가까이 접하며
생활에 기쁨과 활력을 얻고, 주님과 더욱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표지: 초동(草童) 87-2 / 모사, 은사

작가: 오경순(베로니카)

성바오로 신학영성 1학년

가톨릭미술가협회 회원

한국공예가협회 회원

교과과정

- 1학년(구약입문)
- 2학년(신약입문)
- 3,4학년(구약중급)
- 5,6학년(신약중급) - 개설 준비

학습안내

- 학기제로 운영(매 학년 1학기, 2학기)
- 한 학기 13회 동영상 강의와 강의자료, 성경퀴즈
- 중간고사, 기말고사
- 학습도우미인 '튜터'의 1:1 동반
- 매 학기 2회 '특강'

입학안내

- 원서교부 · 접수: 매년 11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홈페이지,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 서원)
- Tel: 02) 944-0840~0842, 0844
- 홈페이지: <http://uus.pauline.or.kr>
- e-mail: e-learning@pauline.or.kr
- 맛보기: 교육원 홈페이지 → 과정안내 → 온라인학습
과정 → 과정 소개란에 '이러닝학습 맛보기'

- QR 코드



-learning

■ 인사말	무엇을 찾느냐?(요한1,38)	오경은(헬레나) 수녀 _ 2
■ 말씀과 삶 - 성경 필사를 마치고 _ 4	신앙의 진정성 네 덕분에 살았어! 다윗처럼 살리라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터닝 포인트 오병이어의 나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열흘간의 여행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며 남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내 얼굴에 미소가	유예경(프란치스카) 정명희(글라라) 이지현(로사) 김혜수(가타리나) 양혜정(모니카) 박혜경(에밀리아나) 손예실(올리안나) 권민정(마르첼리나) 장남이(M.아우구스티나) 이연숙(로사) 조현진(보나) 수녀 이상숙
■ 성경비평 방법론	설화비평에 대하여	박병규(요한 보스코) 신부 _ 33
■ 창작동화	파란 대문 집으로 오세요	조임홍(가타리나) _ 41
■ 삶을 향하여 _ 48	남편을 살려주세요 아들을 지켜보면서 먼저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조금씩 일상에서 느껴지는 변화 보물로 바뀔 남편을 기다리며 내 삶의 변화가 곧 선교 먼저 내 가족 안에서 영원한 삶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살아났으니... 내 삶을 이끄시는 하느님 종현이를 보낸 후 가족 안에서 만난 하느님의 섭리	여애경(가타리나) 김종숙(리오바) 황미남(헬레나) 조혜인(엘리사벳) 유은숙(데레사) 남지원(가브리엘라) 최은아(도로테아) 한진호(안드레아) 박 숙(마리아 막달레나) 박영숙(마르타) 강정규(수산나) 김영희(리오바) 윤숙진(헬레나)
■ 하느님 사랑 체험 _ 67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평가 봉사를 돌아보며 전국 통서가족 피정에 다녀와서	윤성규(바오로) 부제 고길석(프란치스코) 곽미숙(도미니카)
■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공부 _ 76	복음사가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하느님 학교에 다녀요	이만실(요한 크리스토토모) 최명애(효주 아네스)
■ 독후감	「나자렛 예수-유년기」	김선동(루카) _ 81
■ 나눔터 _ 85	■ 이러닝학습 센터 _ 88	
■ 교육원 소식 _ 92	■ 연수회 갤러리 및 소감 _ 100	■ 책소개 _ 108

무엇을 찾느냐?(요한1,38)



오경은(헬레나) 수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날 자식들 일로 언성을 높여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평소에 금슬이 좋았던 두 분이었기에 싸움을 한 다음에 할머니는 너무 속이 상해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할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걸어도 할머니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다 마른 빨래를 방 안으로 가져와 개켜서 옷장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옷장을 열고 무언가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저기 뒤지더니 급기야 옷장 속에 있던 옷들을 하나 둘씩 꺼내 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못 본 척했는데 가만히 바라보니 짜증이 더 올라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치우는 것은 할머니 몫이 되니까, 볼멘 목소리로 “뭘 찾으시우?”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임자 목소리를 찾았구먼.” 할머니도 웃으시며 마침내 말문을 다시 열고 화해하셨습니다.

마을에서 ‘호랑이 영감’이라고 소문나셨던 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일 앞에서는 누구를 불문하고 호되게 야단치시는 성격이 강직하신 분이셨지만 할머니께는 물론 어린 시절 말손녀인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자상하고 따뜻하며 다정다감하신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지혜로 잠시 잃어버렸던 할머니의 목소리뿐 아니라 마음까지 되찾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첫 제자들에게 “무엇을 찾느냐?”(요한1,38) 하신 예수님의 질문을 마주하면서, 문득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상이 갈수록 혼란과 무질서가 증폭되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과 가정이 차츰 무너져 가고 점점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특히 그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있거나 아예 자신을 놓아버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마음 한 편이 아련히 아파오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지만,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할지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잃었던 은전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뒤지는 여인’(루카 15,8)의 심정이,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루카 15,4)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연민의 마음이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주시려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캐오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의 과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잃었던 마음들을 찾게 해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실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 영적인 죽음 한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 역시 매일의 삶, 사도직에서 간절히 찾고 기다리게 됩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 잠시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자캐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 그것을 되찾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이웃도 살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하느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신성서교육원 학생들과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빌며, 주님의 말씀과 성체 앞에서 함께 기억합니다.



말씀과 삶-성경 필사를 마치고

사무엘기에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요약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에 대해 느낀 점을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 쓰십시오.

신앙의 진정성

유예경(프란치스카) · 1학년

메시아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생애는 어떠했을까? 그토록 하느님의 총애와 은총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은 다윗의 삶이라면 얼핏 생각하기에 허물 하나 없는 거룩하고 고한 삶이었을 것 같다. 하지만 사무엘기에서 비춰지는 다윗의 삶은 하늘 끝까지 오를 것 같은 영광과 함께 땅 끝으로 꺼질 것 같은 비천함이 함께 얹혀 있었다. 또한 하느님께 대한 순결한 신뢰와 함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어두운 죄가 교차한다.

이사이의 막내아들인 다윗은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는다. 다윗은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신뢰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필리스티아

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곤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 되지만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 의해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다. 사울의 아들 요나탄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다윗은 필리스티아 땅으로 망명하는데 거기서 그를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지만 주님께 ‘기름부음 받은이’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려준다. 필리스티아 땅에서 그는 그 지역의 통치자에게 배척받고, 다른 부족의 침략으로 전 재산과 부인들까지 모두 잃는 등 고난을 겪지만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으로 잃은 모든 것을 되찾고, 사울의 사후 유다 땅으로 귀환한다.

유다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다윗은 7년 반 동안 유다 땅을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사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간 다스린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로써 이스라엘의 영토를 안정화시켰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여기저기 몸을 숨기던 신세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임금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 영광은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그를 죄로 이끌었다. 임금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야를 전투상황을 가장하여 죽인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집안에는 칼부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벌을 받고, 이는 실제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현실로 드러난다. 압살롬에게 쫓겨 다윗은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고 그 과정에서 슬한 모욕을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이미 깨닫고 회개하였던 다윗은 이 모든 모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윽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제압되자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휩싸인 채 궁으로 돌아온다. 말년에 다윗은 다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죄를 짓지만 이때도 다윗은 겸허히 회개한다.

이렇듯 다윗의 인생은 ‘믿음-은총-교만-죄-회개-은총’으로 반복되는 고리로 점철되어 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며 때론 열심히 하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네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하지만 그의 삶이 현대의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간직한 하느님께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지 않나 싶다.

그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때 바리사이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주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 왕이라는 그의 지위도 생각지 않은 채 옷을 벗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으며(2사무 6,14), 회개할 때는 화려한 번제에 앞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겸허하게 하느님 앞에서 승복하였다(2사무 12,13; 24,17). 또한 큰 곤경에 빠졌을 때조차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을 얻었다. 아말렉족에게 성읍은 불타고 자신의 두 아내를 포함한 모든 부하의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으며, 이에 분노에 찬 부하들이 반기를 들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다윗은 “주 자기의 하느님 덕분에 힘을 얻었다.”(1사무 30,6ㄷ)고 한다. 이렇듯 다윗은 ‘신앙의 진정성’으로 인해 자신을 낮은 위치에, 하느님을 하느님의 위치에 놓았고 그리하여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의탁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결정의 순간, 진정성에 의지하여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한 경험이 있다. 입회를 앞두고 수녀원 평의회에 자서전을 제출했다. 세례를 받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던 나는 하느님께 돌아오기까지 슬한 일들을 겪었고 그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개방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적었다는 창립자 수녀님의 말씀이 떠올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다 적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입회 심사를 위한 평의회가 치러졌고 나는 성소담당 수녀님께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내 자서전을 보신 평의원 수녀님들의 입회 허락 찬반 투표가 반반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진정성을 보시고 입회를 허락하셨다고 했다. “진정성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의 성과 같은 거예요.” 당시 수녀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내 귓가를 울린다.

이런 긍정적인 체험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일의 삶에서 그 진정성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아직도 기도에 몰입하기보다는 내 자세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묵상내용을 나눌 땐 어떻게 하면 멋진 말로 포장할까 고민하기도 하며 고해성사 때는 이리저리 자신을 변호하기도 한다. 다윗은 말하였다.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 더 천하게 될 것ियो.”(2사무 6,22ㄱ)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

으며 자신을 피조물의 위치에, 하느님을 창조주의 위치로 올려드리는 다윗이 지닌 신앙의 진정성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기 두려워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나에게 큰 귀감이 된다. 결국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홀륭하고 높은 사람’이라기보다 당신 앞에 ‘작고 솔직한 사람’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네 덕분에 살았어!

정명희(글라라) · 1학년

1.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

다윗이 필리스타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요나탄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요나탄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심지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자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네.”(1사무 19,2) 하며 다윗에

게 알려주었다. 요나탄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했다.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임금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은 임금님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였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1사무 19,4-5)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을 설득시키고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는 말을 듣는다.

사울에게 악령이 내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라마의 나뭇에서 달아나 요나탄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왕자님의 아버지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이렇게 제 목숨을 노리신단 말입니까?... 살아 계신 주님과 왕자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저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습니다.”(1사무 20,1-4) 그러자 요나탄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려고 하시는데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자네를 무사히 떠나가게

해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탄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듯이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리를 지켜주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또한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없애 버리실 때에도 내 집안과 의리를 영원히 끊지 말아주게.”(1사무 20,13-15) 요나탄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네.” 하며 다윗 집안과 계약을 맺었다. (1사무 20,16)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초하룻날과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다윗을 찾았다. 사울이 요나탄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자 요나탄이 아버지 사울에게 “왜 그가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1사무 20,32) 하며 다윗을 두둔하였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탄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 요나탄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요나탄은 다윗을 떠나보내기로 하였다.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세

번 절하였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게. 우리 둘은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후손과 자네 후손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는가?”(1사무 20,42)

그렇게 다윗은 떠났다. 다윗은 끊임없이 뒤쫓는 사울을 피하여 필리스티아로 망명하고 또 배척당하지만,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아멜렉족을 치고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았다.

필리스티아인들에 의해 요나단이 죽었다.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 죽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때까지 단식하였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고는 ‘활의 노래’라 이름 붙여 유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일렀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 있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이 소식을 갓에 알리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 전하지 마라. 필리

스티아인들의 딸들이 기뻐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좋아 날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그 비옥한 밭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마라.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지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졌다. 요나단의 활은 살해된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굳기름을 묻히지 않고서는 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은 허공을 치고 되돌아 온 적이 없었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이 세었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는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예복에 금붙이를 달아주었다.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살해되다니! 나의 형 요나단.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게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답소.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2사무 1,19-27)

2. 나의 체험

주님은 저를 통하여 친구를 살리셨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뭔지 모르게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상주에 살고 친구는 구미에 있는데, 둘 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만날 시간은 별로 없지만 중학교 때부터 제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날 떠오른 말씀이 있어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주님께서 네 마음을 알고 계실 거야.”라고 문자를 넣었는데, 그날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문자를 받는 순간 친구는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찡한 전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밤새 생각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다음날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무슨 일인가 하고 하니,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은 학교를 뛰쳐나와 연락이 되지 않고, 남편은 제일 친한 후배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며 죽고 싶고 아무 의욕도 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 토요일 근무 마치고 갈 테니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일단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토요일 구미로 갔을 때 친구 얼굴은 가죽만 남아 있을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친구와 대화 중에 아들의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퇴서를 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말

썩 피우는 아이들한테 본인 자퇴를 강요한다더군요. 친구는 아이부터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사정하며 전화를 끊고는 엄청 울었습니다. 친구를 진정시키며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들었지만, 어떤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성당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해.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아무 말도 기도도 하지 말고 앉아만 있어. 저녁에도 힘들면 성당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혼자 있게 놔두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 헤어져 상주로 돌아온 저는 본당 수녀님께 “○○성당에 아시는 수녀님이 계세요?” 하고 여쭙었더니 친한 수녀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대강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수녀님께서 친구와 직접 연락해서 신부님께 성사를 보게 하고 힘든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사실 제 친구는 딸 둘을 낳고는 아들을 낳기 위해 성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냉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수녀님께 레지오 활동도 권할 것을 부탁드렸고 성경대학도 가게 하였습니다. 친

구는 제 이야기와 수녀님의 말씀을 모두 따랐습니다. 마침 송봉모 신부님의 피정이 있어서 가라고 했더니 참여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아들이 어려서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많이 때리고 상처 받을 말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네 마음이 아프냐? 네가 그 아이를 때릴 때 내 마음이 더 아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친구는 회개의 기도를 열심히 바쳤고 그 결과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그 이듬해 1학년에 재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에서 문제만 발생하면 아들이 주동한 것처럼 여겨져 힘들었는데, 아들은 “엄마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며 무사히 3년 과정을 마치고 올해 졸업을 했지만 수능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제대 이후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 문제는 후배 부부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정말 용서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와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 집이 이사를 가는 것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친구는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본당 레

지오 활동과 성경대학 봉사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냉담했던 남편은 성사를 보고 지금은 성당에 잘 다니고 있으며 두 딸과 입대한 아들까지 온 가족이 신앙생활에 열심입니다.

올해 봄, 친구와 함께 대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친구가 “나는 네 덕분에 살았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야. 그건 바로 주님의 뜻이었어.”라며 지난날 힘들었던 시간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나탄과 다윗의 우정처럼 우리도 죽는 그날까지 함께하자며 맹세했습니다.

당신께 의탁하고 당신의 뜻에 맡기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시어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친구의 일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살리라

이지현(로사) · 1학년

17,46-47)

1. 다윗과 골리앗(1사무 17,1-17,54)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의 싸움에서 거인 골리앗 장수가 나타나 그들을 압도하였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하나 내보내라.”(1사무 17,10)

사울의 군사들이 공포에 떠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의 용기가 발휘된다. 그는 왕에게 필리스티아 사람의 도전에 맞서자고 제안한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나 믿음으로는 가능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1사무 17,32-37) 사울은 승낙하지만 걱정이 되어 자기 군복과 무기들을 다윗에게 주었다. 하지만 다윗에겐 그저 무겁기만 할 따름이었다.(1사무 17,38-39) 다윗은 무거운 것을 모두 내려놓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적진을 향해 나아간다. 결국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계시며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1사무

우리는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내 힘과 능력인가? 아니면 하느님 안에서의 용기와 힘인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그저 작은 소년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부분이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이었다.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사울 왕은 가장 보편적인 선택을 한다. 자신이 가진 갑옷과 칼과 방패로 약해 보이기만 하는 다윗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인생을 전쟁터로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일 수 있으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하고 싶은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나의 능력과 경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서는 비록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나 정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세상적인 눈과 힘으로 무장해서 잘 살아오던 나는 수녀원에 입회해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 이번 활동

수련기 동안 전혀 접해보지 못한 소임지에서 실습을 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가출한 아이들을 만나는 소임을 하면서 나를 제외한 모든 실무자들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나를 위축시켰다. 외부 기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보게 되었고, 내가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 일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 위축감과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하느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글로만 배운 것들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와야 할 싸움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 힘과 능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회의를 가져오지만 하느님으로 무장했을 때는 자유로워지는 것을 체험했다. 돌멩이 몇 개만 들고 자유롭게 골리앗 앞으로 달려 나갔던 다윗.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꼭 찬 사람이 되고 싶다.

2. 사울과 다윗의 관계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 다윗의 지도가 높아지자 사울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1사무 18,6-9) 사울은 두 번이나 창으로 다윗을 살해하려 했고(1사무 18,10-11) 실패하자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으나 이 또한 실패한다(1사무 18,20-25).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되고 이방인의 땅에서 신변보호를 위해 미친 척 하기도 하고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는다. 그 와중에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던 사울은 두 번이나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인 사울을 손 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살려 보낸다. 하느님께서 사울을 좋지 않게 보신다면 언제고 손수 내치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1사무 24,1-23; 26,1-25) 결국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큰 부상을 입게 된다.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 손에 죽기 전에 스스로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 죽는다.(1사무 31,1-13)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

나 있었음에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를 놓아주는 다윗을 볼 수 있다. 다윗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계속 피력했다. 만약 사울이 깨어 있었다면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사울이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다윗의 말이 들렸을 것이다.

하느님이 삶의 중심이 아닐 때 점점 불안해지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내 삶에서도 보게 된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계속 기억하고 싶다.

3. 다윗의 범죄(2사무 11장-12장)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밋 세바를 취하기 위해 결국 우리야를 전사하게 만든다. 예언자 나탄이 예화를 들어 그의 잘못을 유도해 내자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중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단죄한다. 나탄의 꾸짖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 회개한다. 이 회개의 노래가 시편 51편이다.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의 참회와 하느님께 매달리는 온전한 신뢰

를 볼 수 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나약함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참회하는 모습이 우리들이 계속 나아가야 하는 길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계속 변한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매순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어서 봐야 한다.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울은 인간적인 욕심과 질투로 인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런 일을 당했던 다윗 역시 우리야의 아내 밋 세바를 취하려고 결국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다. 인간적 욕심이 얼마나 큰 일을 자초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각자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사울은 하느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예언자 나탄을 통해 자신이 하느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즉시 깊은 회개를 했다. 처음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정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하느님은 우리가 흠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되길 바

라실까? 다윗을 보거나 나를 봐도 그런 아닌 것 같다. 실수에 빠져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느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바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끊임 없이 기회를 주시고 깨우쳐 주는 인물들을 보내주시겠는가? 실수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받아들이시며 돌아서도록 계속 부르시는 하느님. 우리가 할 것은 이를 알아듣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뿐이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의식하지 않으면 나로 꽉 차서 오만해지는 나를 만나게 된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가득 차서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문제라고 단정하는 교만을 범하게 된다. 이렇게 내가 옳고 틀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느님께로 돌아설 용기가 생기지 않게 된다. 하지만 우리를 벌주시기 위해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것에 믿음을 두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용기를 낸다면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시편 51,5)라는 구절을 보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생각했다. 옆에서 누군가 나의 약

점이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나는 어떻게 듣는가? 잠시 멈추라는 하느님의 소리로 알고 귀 기울여 듣는가? 아니면 온전히 상대방의 오판이며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음을 합리화하며 들으려 하지 않는가? 다윗이 나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온전히 마음을 열고 듣는 자세, 알아들었을 때 주저함 없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세 가지 이야기 안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하느님께 대한 우직한 신앙과 충성이었다. 백성을 위하는 선량한 왕, 완벽하지 않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으나 하느님 앞에서는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충직한 신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완벽주의에 빠져 자신을 못살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완벽해지는 것이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첫서원을 준비하며 나의 약한 점에 대해서 듣고 좌절했다. 이런 부족한 상태로 봉헌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유혹에 빠졌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

고 이런 약한 나를 받아주시는 하느님을 만났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기에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두기 위해 노력하는 다윗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었다. 부족하지 않았다면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을까? 돌아갈 곳이 있을까?

“언제나 저를 솔직히 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귀와 마음이 열려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마음을 돌려 새 삶을 찾았던 사람들을 찾아보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김혜수(가타리나)·2학년

인생이란 가장 훌륭한 목상자료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나 광암 이 벽의 용기 있는 믿음을 따르지는 못해도 평범하게 살아온 나의 인생길에서도 확실하게 주님을 향하게 해주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온 식구가 불자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고교시절부터 성당에 다녔고, 대

학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열심히 원불교 신자인 시어머님의 강력한 입교 권유가 있었지만 순교성인들을 생각하면서 물리쳤습니다. 그래도 8년이란 긴 냉담기가 있었지만 시어머님의 가톨릭에 대한 신뢰를 보고 장롱에 모셔놓았던 십자가와 성모상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지금 다시 돌이켜 봐도 신선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약 15년간 외국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과 두 아이가 세례를 받았고, 견고한 성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 스스로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었고, 내 열정과 노력과 의지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주 여러 번 주님께서는 기회도 주셨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온 마음이 가 있어 내게 다가오는 불행의 시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루프스라는 난치병에 걸렸고 저 또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한번 들어온 불행은 손에 손을 잡고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투쟁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기

도의 힘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통회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구하기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불행은 굴러오는 눈덩이와 같았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러서는 매주 미사 중에 하느님께 온갖 패악을 부렸습니다. 남편의 사업부도와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판단이 흐려졌고, 저는 지독한 우울증으로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성모님께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묵주기도가 아니었으면 그 혹독한 시기를 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고통 속에서 주님은 내게 날개가 있음을 일깨워 주셨고 저는 생활전선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증오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반목했고, 내 입은 매일같이 독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했고 불면의 고통이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닥칠 때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고 패악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인들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정리하고 가

라앉은 마음으로 주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실로 긴 세월 동안 안개 속처럼 어둡고 축축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 앞에 앉으니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서는 그 불빛 앞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되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는 진실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었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저의 교만에서 나온 실패였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잘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인정하기 싫었던 일들을 토해내고 나니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리만치 그들과 함께했던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 고마웠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진 고난 끝에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가난이 원망과 부끄러움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모진 세월을 보낸 다음에야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을 버리기가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깊은 세월인 만큼 기쁨도 컸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터닝 포인트

양혜정(모니카)·2학년

이전까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후 새 삶을 찾은 사람’이라 함은 중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한테나 해당하는 것인 줄 알았다. 감동적인 영화나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개과천선을 한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바로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사건이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나는 어렸을 적부터 왜 성당을 다녀야 하는지, 더 나아가 왜 내가 종교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저 주말이면 엄마가 미사에 가라고 집에서 내보냈고, 주일학교 그리고 복사까지 그저 엄마가 시켜서 했다. 엄마의 강요에 수동적인 태도로 따라갔다. 어떠한 한 치의 절박감도 없이. 고등학교 3학년 땀 미사에도 아주 가끔씩 빠졌다. 엄마에겐 성당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학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독

서실로 가버리곤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성당은 내가 다니고 싶어서가 아닌 그저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다녔으니까.

그리고 하느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말이다. 그런데 그해 대학입시에 낙방하고 말았다. 학교 선생님들께선 내가 그 대학에 꼭 붙는다고 확인하셨는데, 어찌된 것인지 대학에 떨어졌다.

그 후 내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몇 개월 동안 정말 방황도 많이 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 두려워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몇 개월의 방황 기간 동안 나는 내 삶을 되짚어 보았다. 그동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없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결과 나는 하느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하였다. 다시 한 번 대학 합격을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 공부하다가 힘이 들면 성경을 읽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성모님께 묵주기도 5단을 꼭 드리고 잤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 수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떨어졌던 자신감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의 일치를 느꼈다. 나는 자신이 몇 개월 전과는 다르게 변화한 것에 깜짝 놀랐고 부모님 또한 많이 놀라셨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신뢰감이 커졌다고 하셨다. 그 시절 내가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은 시편이었다. 시편은 나에게 참 많은 힘이 되었다. 우울하거나 힘이 들 때 시편을 읽으며 기운을 차렸기 때문이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수능이 다가왔고, 그해 나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 날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아 하느님과 성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그때의 기쁨과 감사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체험이 되었다. 이처럼 나는 대학 낙방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통해 19년 동안 하느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던 내 삶을 뒤우치고 마음을 돌려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아마 이러한 터닝 포인트조차 없었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또 냉담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다.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쑥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만큼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등불은 밝게 빛나야 제 몫을 다하는 법입니다.

오병이어의 나눔

박혜경(에밀리아나) · 2학년

제 고향은 김해김씨와 파평윤씨의 집성촌인 시골입니다. 경상남도 덕유산 끝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남강의 하류가 휘감아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논농사와 밭농사를 할 수 있는 평야지대라 ‘한들’이라 했습니다. 저의 마을에는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시설이 없었고 그저 무속신앙이라 할까요, 동네 어귀 성황당 같은 곳에 돌을 쌓고 소원을 빌고 정월 대보름 달맞이를 하면서 기원을 하는 것이 전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했고,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신랑을 만나 결혼 전에 세례성사를 받고 혼배성사를 받았지만 10여 년을 냉담 아닌 냉담, 아니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주일만 지키는 신자였습니다. 기본적인 교리

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경 통독이나 묵상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주일미사 때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 감동보다는 매일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너무 어렵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인지 미사 후에는 머리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자리해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주일 간식 봉사를 시작으로 이 단체 저 단체 기웃거리면서 작으나마 성당 봉사 활동에 참여도 하고 성물방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마음 한구석은 채워지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곁돌았습니다. 순수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제 마음속엔 하느님의 말씀이 좀처럼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숨긴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당당하게 전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표현력이 부족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기질을 타고난 저로서는 반모임이나 성당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쑥스럽고 어색한지 힘들기만 했습니다. 교우가 아닌 지인들과 식사를 할 경우에는 소리 내어 식사 전 기도를 하지 못하

고 마음속으로 하거나 식탁 밑에서 저 혼자만의 성호를 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라고 덕담하는 교우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신앙의 멘토인 장 베로니카님이 성경공부를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공부라면 십리를 도망가는 저는 마지못해 승복을 하였고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고 겁도 났습니다. 금요일 미사가 끝나면 말씀 나누기를 하고 각자 한 가지씩 만들어 온 나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섯 명이니까 여섯 가지 나물이어야 하는데 항상 풍족합니다. 혹 지나가던 자매님이나 수녀님이 같이 식사를 해도 항상 충분합니다. 과일·쿠키·커피 등 후식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 준비를 해옵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오병이어’입니다. 장 베로니카 자매님이 지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를 ‘교감쌤’이라 부릅니다. 나태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챙기고 다독거리고 기도 말씀으로 붙들어 앉힙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한 알의 밀알이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손예실(울리안나) · 2학년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올해 27년째입니다.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성당에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관면혼배 예식을 했지요. 그때 저희 부부의 주례 선생님 내외분을 17박 18일 동안 집에 초대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내외분의 깔끔하고 다정한 성품에 그리 어렵지 않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일흔을 훨씬 넘긴 연세에도 강단에서 교육심리학을 강의하실 정도로 건강하시며 개신교회에 열심한 신자이시고, 사모님께서는 다섯 명의 손주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처장을 맡으신 첫째 남편 미카엘이 학생회 간부였기에 ‘첫째 아들’이라 부르셨고, 저희 부부가 결혼

후 한동안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가면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내외분을 모시는 동안 식사 전 기도는 항상 내외분이 돌아가면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식사 전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느님을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항상 봐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와 청원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식사 전 기도를 들으며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앙을 가진 지 40년이다 되어가지만 간단한 기도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소공동체 모임 등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기도 문구를 미리 써서 읽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 내외분의 기도는 자연스럽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자유기도를 하려면 그 자리를 피하던지 기도를 하다가 말문이 막혀 창피를 당할까 봐 안 하고 마는데 교수님 내외분의 자연스러운 기도는 저희 부부를 감동시켰습니다.

식사 후 기도는 저희 부부가 돌아가며 했는데 교수님 내외분께서는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깊이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개신교에는 조상을 기리는 기도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일에 저희는 성당으로, 교수님 내외분은 교회에 모셔다 드릴까 하다가 계시는 동안 쪽 성당에 나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오랜 숙원사업을 이루었다고 좋아하며 흡족해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나 하느님이 가까이 모시고 하느님께 감사와 청원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생활에 소극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타 종교에 비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느님을 알리기보다 나만의 신앙에만 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먹기 싫어 성당 내에서의 일조차 말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당장에 죽는다면, 과연 하느님 앞에 몇몇이 설 자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열흘간의 여행

권민정(마르첼리나) · 2학년

이번 여름 뜻하지 않게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생각했던 물음이다. 처음에는 장염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고열과 피검사 수치가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골수검사까지 하고 격리병동으로 옮겨졌다. 혈소판 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높아서 격리병동으로 옮긴다고 했다.

골수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3일 동안 참으로 애가 탔다. 괜찮을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꾸 불안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기서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 가신다면 하고 생각해 보았다. 늘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닥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느님 앞에 몇몇이 설 자신은 당연히 없었고, 아직 초등학생인 딸도 많이 생각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딸이기 전에 하느님의 딸이니까 알

아서 책임을 지시겠지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살든 죽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감사드린다는 화살기도를 자주 했다. 그러면서 대모님과 몇몇 분에게 골수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했다. 하루이틀이 지나고 1차, 2차 결과가 나오면서 수치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감사드렸다. 그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되었다. 최종 결과가 나온 날, 일시적인 감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퇴원을 해도 된다고 했다. 그렇게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낫설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 같았다. 나름대로 하느님의 딸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하느님 안에서는 혼자가 아니며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다.

앞으로 나에게 허락된 삶이 어디까지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의 삶이 다하는 날 당신 앞에 뿔뿔이 설 수 있기를 바란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창조주 하느님께서도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회심을 통하여 당신 앞에 뿔뿔이 설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보는 여름이었음에 감사드린다. 오늘도 '자비하신 당신의 무한한 은총으로 부족한 나를 바꿔 주님 닮게 하소서.' 하며 주님의 자비를 청해본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건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믿음을 묵상하고, 나의 체험과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며

장남이(마리아 아우구스티나)·3학년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몇 년 전 어느 형님께서 저에게 병원 봉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며 말씀을 건네셨을 때,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곳이며 무엇보다도 오래 전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언니가 불행을 당한 곳이어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중앙 일간지에서 육순이 지난 어떤 형제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휴대전화를 끄고 병원 봉사를 하신다는 기사를 읽고, 몹시 추웠던 날로 기억되는데 병원에 가서 선배 봉사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따뜻한 국을 먹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밥을 주십니까?’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저를 몹시도 힘들게 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신음소리, 암 투병 환우들의 까까머리, 사고로 머리가 함몰된 모습, 다리를 절단한 모습, 병실의 역겨운 냄새는 비위를 상하게 했으며 혹시라도 저에게 병이 옮을까 봐 환우들의 손도 잡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봉사 가는 날이 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상신학원에 입학했는데 주 5일 공부에, 하루는 병원 봉사를 해야 하니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원목 수녀님께 신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녀님께서는 공부를 핑계 댔지만

실은 이 기회에 병원 봉사를 그만두고 싶어서였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참으로 묘하십니다. 하상신학원 2년간의 공부를 마치는 학년말 고사를 치르고 저는 병원 원목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 봉사를 시작했는데 즐겁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떤 핑계를 대고 가지 말까 하는 망설임은 여전하고 환우들을 대하는 것도 살갑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만두지를 못했는데 암 투병을 하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반가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면서, ‘그랬구나, 내 기도가 저분한테 위로가 되었구나.’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예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게 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자 비위를 상하게 하던 역겨움도 사라지고 환우들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암 투병 중인 어느 자매가 저를 찾는다는 원목실 수녀님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갔더니 그 자매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진정시키며 울지 말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악마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예수, 마리아, 요셉 님, 가타리나를 구

원하소서.”를 계속 바쳤습니다. 한 시간 후쯤 그 자매는 임종하였고, 남편에게 아내의 눈을 감겨주게 하고 임종기도를 바쳤습니다.

연말에 남편의 휴가를 이용하여 친정인 여수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도 암 투병 중인 자매가 연말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병원 측의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집으로 올라오기로 예정한 날 아침, 밖을 보니 남쪽에 서는 보기 힘든 폭설이 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남편이 서둘러 올라가자고 하기에 저는 성당에 들러 10시 미사에 참례하고 올라가자고 했으나 더 늦어지면 길이 막힌다고 남편은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수원쯤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그 자매의 위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으로 가지 말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를 본 그 자매가 “마리아, 와 줘서 고마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모니카, 나 왔어요. 왔으니 기운 차려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느님께 기도해요.” 저는 그 자매의 손을 잡고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마음속으로 ‘모니카, 내가 바치는 이 장미꽃송이

를 밟고 가서 하느님 품에 안기세요.’라고 기도했지요.

의사 선생님께서 밤 9시 40분에 사망 확인을 하셨고, 저는 그 자매의 얼굴에 입맞춤해 주고 임종기도를 바쳤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말씀하시더군요. 마리아가 누군지, 계속 마리아를 찾았다고요.

서울대교구의 전 원(바르톨로메오) 신부님께서 본당 장례미사 후 장례 행렬이 성당 문을 빠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독백처럼 바치는 기도를 저도 「상장예식서」 맨 앞장에 붙여두었습니다. “주님, 또 한 분의 교우를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시간 동안 지은 죄는 묻지 마시고 그가 살아내야 했던 삶의 멍에만 생각해 주십시오. 설령 그가 주님께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에게 운명처럼 부여된 삶의 멍을 한평생 지고 살아냈다는 그것만으로 그는 아름답고 위대해 보입니다. 주님, 저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가타리나와 모니카 자매님의 장례미사 후에 저도 이 기도를 바쳤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원 봉사를 통해 죽음을 가까이서 대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언젠가 제가 맞이할 죽음을 준

비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이연숙(로사)·3학년

2010년도 7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문제가 저와 남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엄마가 주는 대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사업은 늘 그랬던 것처럼 힘들었고 남편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었으나 저는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너의 몫을 다 주었으니 더는 줄 것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땅을 팔아서 적지 않은 돈을 해주셨고 저는 그 돈을 갚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니 주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고 제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몹시 화를 냈으며 2년 동안 등을 돌렸습니다. 실은 저의 마음도 흔들렸습니

다.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남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지금 많이 힘들고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시 그 시간이 온다 해도 저의 선택은 같을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무시하였고,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친정집에는 왕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저 역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지요. 결혼하고 끊임없이 친정에 손을 벌리며 살았고 아들보다도 더 믿어 땅을 팔아서까지 돈을 해주셨던 분인데, 무책임하게 그 돈으로 주식에 손을 대어 모두 잃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실망을 보여준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친정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제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지 못한 저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남편은 전부였습니다. 잘나고 멋있는 저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더 이상 하늘도 전부도 아

난, 저에게 남편은 내 꿈을 모두 앗아간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친절에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재산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외면했고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나는 너를 버렸어.” 그래서 이혼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활비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말 아르바이트 자리를 간신히 구해서 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신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허망한 것에 매달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간에게 나의 전부를 의탁하지 않겠다고 하느님께 맹세했습니다. 이제 하느님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해 달라고, 다시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게 당신 곁에 꼭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하고 있는 성경공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저를 당신 곁에 붙어 있

게 하시려고 당신 말씀 안에 저를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기를 기도했고 하느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주일도 일을 하다 보니 새벽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당 사무실에서 주말보조를 구하는데 제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두말없이 저는 “감사합니다! 참말이지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저를 써주신다니 그리고 하느님 곁에 있게 해주신다니 정말이지 하느님께 감사했고, 본당 신부님과 사무장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이지 저의 하느님은 제 편이셨고 저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셨고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의 변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남편과의 사이를 좁히지 못한 채 남편 아닌 남처럼, 아내 아닌 남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이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었기에 제대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저의 원망과 분노도 이만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태의 원인을 모두 남편에게 돌리고 남편이 고개 숙이고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해결의 열쇠는 오직 그 사람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고상한 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성당 성모의 밤(5월 31일) 행사를 며칠 앞두고, 그리고 레지오 마리에 선서를 며칠 앞두고 불현듯 모멸감과 치욕스러움에 아파하는 남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이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아픔이 저의 아픔과 맞물려 저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었습니다. 정말로 가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의 마음이 도망갈까 봐, 자존심이 커져서 없었던 일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이 은총이 달아날까 봐 얼른 목주를 잡고 기도했어요. 이 은총을 잡게 해 달라고, 오늘 하루만이 라도 제 안에 남아 있게 해 달라고, 변하지 않게 해 달라고...

저녁에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죄했습니다. 당신 마음 몰라주고, 우리 친정 아버지가 당신께 한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사죄하니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자상한, 옛날 나를 보아주던 아주 평화롭고 자상한 눈빛이었습니다. 저의 그 행동 하나로 남편의 얼굴은 선하디 선해졌고 예전의 독기는 하나 없이 평화로운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저의 행동이 이렇게 남편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가르치시려고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도도한지 알라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는 하느님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남편 덕분에 사람다움을 배워가고 하느님을 알아갑니다. 그날 남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음을 압니다. 누가 뭐래도 말입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계신 당신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음을 압니다. 이제는 제가 응답하

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예, 로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남편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아픔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서로가 서먹하고 거리감은 있지만 남편은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지금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중입니다. 저의 마음은 지금 천국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조현진(보나) 수녀·3학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은 저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줍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낯선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하느님을 원망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숨은 뜻을 찾으려는 자세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동시에, 제가 겪은 일들과도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저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집트에 팔려 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 갑작스러운 변화, 그것도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과 함께 무력감을 가져온다는 것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알게 된 것이어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영화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든 친구들, 학교, 익숙해진 모든 것은 내려놓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맞을 준비를 하시느라 며칠 일찍 출발하셨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비행기에 오른 저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식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긴 비행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입국 심사였습니다. 대답을

잘못 하면 타고 왔던 비행기에 바로 태워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터라, 잔뜩 긴장한 채로 이것저것 예상 질문을 혼자 생각하고 답하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심사대에 섰을 때 심사관의 질문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불안한 눈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짜증을 내며 계속 물어대는 심사관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는 단어가 몇 개 나와서 간신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아버지를 만나 도망치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저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무수히 되돌아오는 “What?”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주눅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숙제를 해 간다거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아 놀림을 당하는 등 저의 생활은 썩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 나라를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속이 상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

도 요셉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곧은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윤리를 지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음에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공경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더 자라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눅 들어 살던 저에게 하느님은 피난처이자 의지할 곳이었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을 영어로만 하는 주일학교 아이들과는 어울릴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하느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영어에 시달리다 한국어로 드리는 미사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청년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도 점차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저보다 늦게 와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제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저에게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삶은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신앙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녀원에 와서 서류 번역이나 외국과의 전화통화 등 영어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 그렇게 오래 전부터 나를 준비시켰구나 하고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의 깊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도 수녀원 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민자들의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도 다른 자매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수월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의 미국 생활은 분명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저를 빚어내셨음을, 그리고 그 어려웠던 순간들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저와 함께하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 중 한 조각이라도 없었다면 저는 지금과는 다

른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늘 함께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저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인 동시에 하느님 백성의 역사라는 것, 그 안에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역사를 방향지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예: 세례, 성경공부, 교회 봉사 등) 나의 태도나 행동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쓰십시오.

내 얼굴에 미소가

이상숙 · 4학년

통신성서 공부를 시작한 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해 그 시기를 전후해서 저의 삶과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기 2,3년 전부터 제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 시어머니와 남편, 아들 내외, 미혼인 아들까지 합해 여섯 식구가 살았고, 저는 주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남편이 자영업을 하면서 성공을 거두게 되자, 건잡을 수 없이 변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식욕·성욕·물욕의 화신이라도 된 듯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오리고기·양고기를 포함해 온갖 고기가 넘쳐 났고, 남자가 입기 어려운 야한 옷들이 방에 가득 찼으며, 동네 삼겹살집 여종업원과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거칠고 난폭했던 남편은 고함과 욕지거리, 구타를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남편의 삶은 바닥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의 몇몇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해 봤지만 호기심 차원의 관심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20년간을 두 아들과 조용히 교회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던 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밤에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잤습니다. 60세가 넘는 나이에 저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30년 전 쯤에 마지막으로 만났

던 미국에 사는 대학동창에게 답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 친구는 미국 한인교회에서 교육 담당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매일 위로의 메일을 보내주었고, 요한복음을 묵상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의 겹겹의 사랑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지구 한편에 내동댕이쳐진 절대 고독의 내가 아니라, 하느님과 겹겹의 사랑 속에 있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며 어느 날 밤에는 방성대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에 무한히 크고 따뜻한 어떤 존재가 제 등 뒤에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며 "소나기는 요란하지만 잠깐이면 지나간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이 되지 않지만 제 등 뒤의 온기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사교육기관인 교사대학에 우리 내외를 등록시켜 주어 1년 후에 수료를 했습니다만 가르칠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너무 커서 교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암수술과 패혈증으로 입·퇴원을 거듭했지만 급전직하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에는 무섭고 두렵고 싫어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기피인물이었지만 이 글을 쓰면서 돌이켜 보니 그 역시 나약한 존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31세에 홀로 되신 어머니의 장남으로 사랑과 격려보다는 언어의 채찍질을 당하며 평생을 살아온 남편 역시 어머니와 함께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사대학을 마치면서 내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하느님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정적으로 일정 시간을 할애하며 집중해서 하느님 말씀을 공부할 방법은 없을까? 해서 신학대학 입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과 과정을 보니 접해 보지 못한 라틴어가 있고 너무 전문적이라 저의 체력과 시력으로는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때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성바오로 딸수도회에서 하는 통신성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개신교회 쪽도 여러 군데 알아보았지만 이곳의 과제물 제출, 채점, 반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밤 10시에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루 중 이때가 가장 기다려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구요. 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올해(2013년) 1월에 교재와 문제집을 받고는 잠깐 상념에 젖었습니다. “올 연말이면 4년차가 끝나는데, 총 8년의 공부기간 중 반환점을 지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또 4년이 지나면 다음에는 무엇해야 하나?” 하며 잠깐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느님께서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는 동안 평가자님의 친절함 평가와 나눔터, 담당 수녀님의 팁까지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화비평에 대하여*

박병규(요한 보스코) 신부**

1. 텍스트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과 그 사람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시간들... 이 세상은 그래서 늘 움직이고 그래서 늘 살아 있다. 이야기가 엮어내는 세상 또한 우리의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 속의 등장인물들을 새로이 구성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에서 텍스트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세상 처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중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시작은 세상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창조의 이야기는 하느님이 빛을 만드시고, 물을 갈라놓으시고, 땅을 드러내시며 창공을 열어젖히시는 것을 묘사한다. 그리고 하늘이며 땅이며 바다에 이르기까지 각종 동물과 식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뿐인가, 낮과 밤이라는 시간적 표지들을 통해 하루, 이틀, 사흘이 흘러가며 결국엔 하느님의 거룩한 쉼에까지 이르는 시간의 흐름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등장인물과 공간과 시간이 실제 경험하는 세상의 것과는 다름을 잘 알고 있다. 창조 이야기는 이야기를

* 이 글은 스위스 로잔 대학의 성서학 교수 다니엘 마흐그라의 소고 “이야기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기 Entrer dans le monde du récit”를 참조하였다.(Daniel Marguerat, “Entrer dans le monde du récit”, dans : D. Marquerat, A. Wénin, B. Escaffre, “Autour des récits bibliques”, Cqhiers Evangile 127, p. 6-22.)

** 대구대교구 선남천주교회 주임

위한 ‘의도된’ 세상, 곧 ‘텍스트의 세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시간, 공간, 등장인물의 인위적 구성을 통해 형성된 텍스트의 세상은 독자의 독서행위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안에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독자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면 텍스트의 세상은 ‘없는 세상’이나 마찬가지다. 텍스트는 독자를 통해 자신의 세상을 드러낸다. 프랑스의 해석학자 폴 리쾨르는 이렇게 말한다. “저자인 아버지에게서 고아가 된 텍스트는 독자의 공동체 안에서 입양된 아이로 거듭난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설화비평적 성경 읽기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텍스트가 독자에게 어떻게 ‘입양(전해지는지)’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설화비평적 성경 읽기의 목적인 셈이다.

2. 설화비평의 위치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성경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역사비평학적인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성경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과 그 편집 과정에 대해 집중하면서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의 형성 배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오경의 연구에 있어 역사비평적 방법론의 전형적인 예를 볼 수 있다.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고, 여러 세기를 거쳐 다양한 전승과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각색되고 편집되었음을 역사비평적 방법론은 잘 보여주고 있다. 흔히들 엘로힘계, 야훼스트계, 신명기계 그리고 사제계로 구별되는 ‘네 가지 문헌 가설’은 역사비평적 방법론이 가져다준 결과물 중 단연 으뜸으로 여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이 부분은 엘로힘계다, 저 부분은 사제계다 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를 ‘분해’하고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모세오경이 구성되었는지, 그 전승들의 시작과 융합 과정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지금의 모세오경의 형태로 고정되었는지 살펴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성경공부의 기본으로 통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비평적 방법론을 역사의 흐름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 본다고 해서 ‘통시적 접근’이라 칭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부터 성경 이야기의 '설화적 흐름'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면서 등장한 설화비평적 성경 읽기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의 '있는 그대로'의 구성과 짜임새를 존중한다. 지금 이렇게 짜여진 이야기는 그 형성 과정이 복잡다단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경 저자들과 편집자들의 '의도'가 결집되어 나타난 하나의 '작품'이므로, 그 작품의 의도를 읽어내어야 한다는 데 설화비평은 관심을 기울인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했을까? 무엇을 의도하면서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시간,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배치시켰을까? 또한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설화비평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시간, 어느 시대에서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설화비평은 실제 역사적 인물인 성경의 저자와 그 저자에 의해 작성된 성경 텍스트를 직접 보았던 실제 역사적 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 우리 눈앞에는 '성경 이야기'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가상의 존재를 '암묵적 저자'라 칭하고, 그 성경 이야기를 접하는 모든 독자들(그 독자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어떤 시대든 간에 성경 이야기를 접하는 모든 이들)을 '암묵적 독자'라고 칭하게 된다. 그래서 설화비평은 다분히 '공시적 접근'의 방법론이다. 성경 이야기가 탄생한 역사적 순간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읽혀지는 모든 시대를 염두에 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3. 설화비평의 원칙들

이제 설화비평적 방법론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주된 방법적 도구들을 살펴보자. 이 도구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의도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길잡이가 된다.

3.1 이야기의 구성

이야기의 구성은 이야기(들)가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를 살

펴보는 것이다. 창세기 1-11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창조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카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등의 삽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 서로 다른 삽화들이 서로 이어져 배치된 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로 인한 것이다. 인간 현실에 대한 사제계 신학자들의 오랜 고찰과 반성을 통해,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느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급기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일종의 인간학적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창세기 1-11장까지의 이야기의 의도다. 인류의 시작은 하느님의 평화 안에 머물렀지만,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하느님과 멀어지고 그 탐욕과 욕심은 인간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나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인간의 교만(바벨탑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창세기 1-11장까지의 여러 삽화들은 이야기한다. 삽화들은 다양할지라도 그 삽화들을 함께 배치시키는 이야기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설화비평적 성경 읽기의 시작이자 마침이라 할 수 있다.

설화비평은 여러 삽화들이 만들어 가는 이야기의 의도된 흐름을 가려내기 위해서 다섯 단계의 설화도식을 제시한다. 초기 상황 - 문제 제기 - 전환 실행 - 문제 해결 - 종결 상황이라는 다섯 단계가 그것인데, 이 도식을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야기에는 분명 어떠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문제 제기)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나 행위들(전환 실행)을 통해 이야기의 문제는 해결되어 간다(문제 해결).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고(초기 상황),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해결되는지도 관심 있게 살펴볼 내용이다(종결 상황).

3.2. 등장인물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내는 것이 이야기의 구성에 관한 것이라면, 등장인물은 그 흐름 속에 하나의 장식품과 같다. 이야기를 이끌고 나갈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태도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입혀나가게 된다. 예컨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루카 19,7)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 문장은 자캐오와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평

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캐오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찌되었건 이야기 안에서 죄인으로 그 성격이 굳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죄인과 어울리는 것이 군중에게는 하나의 스캔들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야기는 하나의 등장인물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규정해 간다. 예수님과 자캐오는 만나고 있으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는 등장인물의 이러한 역할과 성격을 통해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가고, 이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문제 해결) 우리는 이야기의 구성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등장인물들은 하나의 역할과 성격으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역할과 성격이 주어져 있는 등장인물도 있다. 복음서에 자주 나타나는 바리사이들은 대부분 예수의 적대자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평면적 등장인물), 마르코복음의 백인대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다면적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어떤 역할과 성격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보면 등장인물 간에 대립적 관계인지 보조적 관계인지를 알 수 있고, 그 관계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을 거부하는지 동조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 등장인물의 행위와 말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 간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는 만들어져 간다. 자캐오가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이야기한다. 죄인의 자리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은 죄인과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3.3. 초점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 답은 분명하다. 이야기가 묘사하는 대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등장인물의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가 묘사하고 있다면(내적 초점화) 우리는 그 등장인물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반대로 등장인물의 외적인 모습과 행동을 이야기가 묘사하고 있다면(외적 초점화) 우리는 그 등장인물의 내면보다는 외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야기가 등장인물이나 사

건의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인지 보다 선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대사제의 기도’의 형식 안에서 전개된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역사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야기는 예수님의 내면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올렸던 기도를 자세히 들려준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대사제의 역할을 맡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3.4. 시간성

실제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의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에 회사에 출근하고 몇 시에 점심을 먹고...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실제로 흘러가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 시간이 이야기 안에서 새롭게 구성되면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기상하는 시간을 아주 자세히 서술하고 출근하는 시간을 아주 간단히 서술한다면, 우리는 기상과 출근이라는 두 사건 사이에 야기되는 이야기의 ‘속도’의 차이를 감지할 것이다. 요한복음의 경우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게 된다. 13장 이후에 펼쳐지는 요한복음의 예수 수난사는 공관복음에 비해 엄청나게 길게 묘사되고 있다. 특별히 예수의 고별사(14-16장)는 공관복음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수난을 길게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께 건네가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다. 반면 요한복음에는 아주 짧게 사건들을 요약하는 장면도 있다.(2,23-25) 파스카 축제 때 보여주신 많은 표징적 사건을 단 몇 절만으로 정리해 버리는 것이다. 어떤 부분을 길게 늘어뜨려서 서술하는 것은 그 부분이 저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이고, 어떤 부분을 요약하거나 짧게 서술하는 것은 그 부분이 저자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서술하다 보면 예전에 일어난 일을 다시 언급하거나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를 서술하는 현재의 시간 안에서 과거나 미래의 시간을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벌어지는 이야기가 과거 또는 미래와의 연결 안에서 어떠한 의미작용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현재 벌어지는 사건의 의미를 더욱 선명히 하는 복음서의 경우가 그러하다. 예컨대 루카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희년 선포 내용을 회당에서 언급하시며 그 희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현재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현재는 과거의 약속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러한 시간의 구성을 통해 의도하는 바이다.

이야기 안에 펼쳐지는 시간의 구성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이야기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강조점을 통해 이야기가 무엇을 더 확실히 전하고자 하는지 짐작케 한다.

3.5. 이야기의 틀

하나의 이야기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이야기의 사회적 배경이라는 틀이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그때가 밤이었다.(요한13,30) 밤이라는 시간적 틀은 요한복음에서 빛이신 예수님과 대립되는 시간 개념이다. 밤은 단순히 시간적 표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기적은 회당 안에서 벌어진다.(1,21) 회당은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공간이다. 예수님의 치유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 회당이라는 공간적 틀이 사용되었다. 회당의 상징적 의미가 예수님의 치유행위를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오로의 선교 덕택에 믿는 이로 거듭나게 된 로마 총독에 대해 이야기한다.(13,12) 이는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적 배경 안에서 복음의 선포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틀은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구성 요소들을 어느 때에, 어떤 자리에 배치 시키느냐를 살펴보는 기준이 되며 같은 등장인물, 같은 구성요소라 하더라도 시간

과 공간 그리고 사회적 배경의 틀을 달리할 때는 전혀 다른 존재적 가치를 지니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3.6. 설화자의 관점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존재를 ‘설화자’라 칭한다. 설화자가 이야기의 대상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관점은 주로 설화자의 해석 안에 뚜렷이 드러난다.

예컨대 마르코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설화자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속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을 읽는 독자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설화자는 독자에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보여주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예로, 욥기의 시작은 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욥은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1,1) 우리는 설화자의 관점에 의해 제시된 욥의 됴됨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전적으로 설화자가 제시한 욥에 대한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화자의 관점은 그래서 이야기가 제시하는 하나의 길과도 같다. 이런저런 길이 있을 테지만 설화자가 제시한 그 길로 걸어가야 이야기는 제대로 읽혀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설화비평적 성경 읽기의 도구들은 성경을 ‘읽기’ 위한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언어학과 문학의 도움을 받아 시작된 설화비평적 성경 읽기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성경 텍스트가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구성되고 짜여졌는지를 살펴보는 데 집중하면서 독자에게 ‘독서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텍스트는 그 자체가 독자와의 만남 안에서 자신의 성격과 가치를 드러낸다. 독자는 텍스트가 의도한 바대로 읽어나가면서 텍스트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나서게 된다. 설화비평적 성경 읽기는 이렇게 텍스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는 데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파란 대문 집으로 오세요

조임홍(가타리나) · 성바오로 신학영성 2학년

봄날, 아지랑이 가득한 언덕을 타고 노랑나비가 파란 대문 집에 왔어요. 문패 옆에는 노란 색종이에 뿔뿔글글 글씨가 쓰여 있어요.

별이네 집, 큰소리로 부르세요.
한 번 더 부르세요.

색종이는 노란 손수건이 되어 팔랑팔랑 누군가를 부르고 있어요.

노랑나비는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보았을 때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지요. 노랑나비는 나풀나풀 날아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느 날 바다 용궁에 용왕님이 병이 났대요...”

아이가 마루에 걸터앉아 종알종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다리는 흔들흔들 고개는 까딱까딱 두 갈래로 묶은 머리는 반쯤 흘러내리고 있었죠.

노랑나비는 조심스레 아이의 머리 위에서 맴돌았어요.

‘애가 별이구나.’

별이는 색종이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종이 인형 위에 무어라 쓰더니 가위로 조심스레 잘라냈어요. 그 모습이 앙증스러워 노랑나비는 방긋 미소 지었어요.

“용감한 파수꾼 완성!”

색종이 인형을 들고 별이가 꽃밭으로 왔어요. 빈터에 나무막대기를 세우고 파수꾼 인형도 붙였어요. 별이는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완성, 완성. 염려 마. 나쁜 벌레들이 널 해치지 못할 거야.”

별이 모습을 보고 노랑나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땅 속에 무엇이 있지?”

노랑나비는 호기심이 생겨 팔랑팔랑 날아보았지만 별이는 알지 못했어요. 별이 눈동자는 땅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노랑나비는 심심해져서 집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자신이 태어난 아지랑이 가득한 언덕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 노랑나비는 아주 작은 알로 태어나 애벌레가 되었어요. 다리는 열여섯 개, 등에는 소복소복 털도 많았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먹어서 몸속에 양분을 모아야 한다. 한껏 튼튼해져서 누에가 되어 포근한 이불 속에 잠들어 쉬고 있으렴.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은 어김없이 봄의 정령을 불러온단다. 파사로운 햇살이 고치 속에 잠든 너를 깨워 멋진 날개를 가진 나비로 만들어 줄 거야. 그때 네 날개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구나.”

엄마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곳으로 떠나야 한대요. 엄마는 곧 따뜻한 바람을 실어 나르는 구름을 타고 여행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노랑나비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구름은 엄마가 가신 곳을 알고 있을 테죠.

노랑나비는 맛있는 잎사귀를 아삭아삭 배불리 먹고 또 먹었어요. 그리고 튼튼한 날개가 달린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고치 속에서 겨우내 잠만 잤어요.

파사로운 봄빛이 내리쬐던 날, 껍질을 벗고 노랑나비는 새로 태어났어요. 같이 태어난 친구들도 풀숲에서 젖은 날개를 말린 후 사뿐히 하늘로 날아올랐죠. 노랑나비도 힘껏 날갯짓을 했어요. 친구들과 같이 날고 싶었어요.

“어, 어...”

친구들이 너무 빨리 날아가요. 노랑나비는 열심히 날갯짓을 했지만 자꾸 뒤쳐지기만 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노랑나비는 친구들이 사라진 빈 하늘만 보다 풀숲에 앉았어요. 친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만 노랑나비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온 친구는 없었어요. 향기로운 꽃을 찾아 떠난 거예요.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노랑나비는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그때 알았어요. 자신의 왼쪽 날개가 찢어져 있고 힘이 없다는 것을. 노랑나비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애벌레일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 엄마 말씀을 안 듣고 나쁜 것을 먹은 것은 아닐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노랑나비는 슬퍼져 날개를 접고 울었어요.

노랑나비는 날개에 힘을 실어 천천히 나는 연습을 했어요. 먼 곳은 갈 수 없지만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한다면 자신이 태어난 언덕을 날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봄빛이 아지랑이 너울처럼 넘실대는 언덕에는 새싹들이 돋아났어요. 땅은 새싹들에게 연둣빛 옷을 입혀주었어요. 노랑나비는 새싹들 옆을 맴돌다 파란 대문 집을 발견한 거예요. 파란 대문 위에 붙어 있던 노란 색종이가 바람 친구를 만나 악수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별이는 유치원에서 수세미외 씨앗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분꽃, 봉숭아, 채송화 꽃씨를 주시고 별이에게는 수세미외 씨앗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꽃씨가 잘 자라게 하려면 물도 주고 햇빛친구도 바람친구도 많이 만나게 해야겠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식물일기를 써 보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큰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세미외는 가지가 멀리 팔을 뻗고 자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당이 있는 집에 사는 별이에게 씨앗을 주신 거예요. 수세미외 씨앗을 심던 날 별이는 결심했어요. 아침에 먹는 맛있는 우유도 남겨서 수세미외에게 줄 테예요.

일곱 밤이 지났어요.

노랑나비는 별이네 꽃밭이 궁금해졌어요. 파란 대문 집으로 날아갔어요. 색종이

파수병은 그대로인데 글씨가 바뀌었어요.

“쉿, 조용, 조용.”

노랑나비도 침을 꼴깍 삼켰어요. 자세히 보니 땅 속에서 연둣빛 떡잎이 흙을 들추고 고개를 쏘옥 내밀고 있었어요. 노랑나비는 떡잎 위를 맴돌며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넌 누구니?”

떡잎이 노랑나비에게 말했어요.

떡잎이 말을 걸자 노랑나비는 깜짝 놀랐어요.

“어, 난 말이야.”

더듬더듬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날카로운 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돼. 나쁜 나비야, 아기 새싹을 먹으면 안 돼. 오지 마.”

노랑나비는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손사래를 치며 달려오는 별이가 무서웠어요. 노랑나비는 언덕으로 돌아가며 나쁜 나비라는 말이 생각나 자꾸 뒤돌아보았어요.

수세미외는 파사로운 햇살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새 넝쿨손이 길게 뻗어 받침목을 세워야 했어요. 넝쿨은 아기손 같아요. 아기손은 받침목을 돌돌 감고 뭉게구름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어요. 수세미외를 바라보는 별이 눈도 별빛처럼 빛



났어요. 쑥쑥 자라는 수세미외가 별이의 자랑거리가 되었거든요. 노랑나비는 별이 네 집을 맴돌았어요. 수세미외가 날마다 키를 키우며 자라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마치 친구가 생긴 듯해요. 그러자 수세미외도 손을 흔들어 노랑나비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별이도 이제 노랑나비를 쫓지 않아요. 새싹을 먹는 나쁜 나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나 봐요.

별이가 만든 ‘수세미를 지키는 용감이’ 종이 병정이 언제나 꽃밭에서 수세미외를 지켜요.

노랑나비는 수세미외가 부러웠어요. 수세미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해님은 따사로운 햇살을 내려주었고 바람과 비와 흙이 서로 도와 씨앗이었던 수세미외를 자라게 하니까요.

장마가 지나고 파란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던 날, 수세미외가 노란 꽃망울을 가득 터트렸어요. 별이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어요.

“와, 꽃이 폈어. 꽃이 폈어. 이제 수세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겠지.”

별이는 수세미외 열매를 안고 유치원으로 달려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노랑나비도 수세미외 노란 꽃잎 위에 살포시 앉아 보았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겼어요. 그러자 수세미외가 말했어요.

“날 도와주렴.”

“내가?”

도와 달라는 말을 처음 들은 노랑나비는 놀랐어요.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그럼.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꽃가루를 날라줄 네가 있어야 해.”

그 말에 노랑나비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대답도 하지 않고 언덕으로 달아나버렸어요.

며칠 동안 노랑나비는 수세미외에게 가지 않았어요. 언덕 위 풀숲에 날개를 접고 앉아 있었어요. 날개를 다친 채 태어난 자신과 모두에게 사랑받는 수세미외가 비교되어 생각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자꾸 수세미외가 생각날까요. 처음 흙을 뚫고 얼굴을 쏘옥 내밀고 자신에게 배시시 웃어주던 눈망울과 날마다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던 수세미외의 넉쿨손이 노랑나비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엄마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 날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제 곧 노랑나비도 엄마를 찾아 따뜻한 곳으로 갈 거예요. 엄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지? 노랑나비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날개를 펼쳐 파란 대문 집으로 황급히 날아갔어요.

“영차, 영차!”

노랑나비는 열심히 수세미외꽃술을 날라요. 한 무리의 나비들도 수세미외 꽃향기에 이끌려 날아왔어요. 친구들이 생겼어요. 다른 나비들이 자신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많은 것을 보았다고 노랑나비에게 자랑스레 말했어요. 그리고 날개를 다친 노랑나비를 보자 우쭐해져서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노랑나비의 그런 모습을 수세미외는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어요.

얼추 수세미외꽃술을 나르는 일이 끝나자 다른 나비들은 새로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노랑나비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지친 날개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습에 다른 나비들은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시무룩해진 노랑나비에게 수세미외 넉쿨손이 톡톡달래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친구가 되어 줄게. 내 씨앗이 품고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전부 너에게 들려줄게.”

“너도 이야기를 알고 있어? 넌 땅속에서 태어났잖아. 나처럼 이곳에만 있었던 걸. 따분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내 씨앗은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어. 흙도 바람도 해님도 우리는 같이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 그런 시간의 터널을 지나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함께 있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노랑나비는 깜짝 놀랐어요. 해님도 바람도 모두 수세미외만 좋아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오랜 친구였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노랑나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

고 귀도 쫓긋 세우고 수세미외가 들려주는 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장마가 지나자 수세미외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열매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수세미외 노란 꽃은 이리저리 피어났지만 노랑나비가 열심히 꽃술을 날라주어 튼튼한 열매가 많이 열릴 거예요.

찬바람이 불기 전에 떠나야 했지만 노랑나비는 남기로 했어요. 쇠약해진 날개는 긴 여행을 이기지 못하죠. 대신 노란 꽃잎에 앉아 꼬박꼬박 즐기만 했어요.

노랑나비는 수세미외에게 말했어요.

“자꾸 졸리기만 해. 어떻게 하지?”

수세미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졸리면 내 꽃잎 속에서 쉬렴. 자장가를 불러줄게.”

“고마워.”

“나도 고마워.”

둘이는 서로 인사를 했어요.

노랑나비는 날개를 접고 꽃잎 속에 앉았어요. 수세미외는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들려주던 자장가 같아요. 그래서 노랑나비는 노래가 손짓하는 길을 따라 나풀나풀 날아갔어요.

노랑나비가 긴 잠에 들었다는 것을 수세미외는 알았어요. 노래를 그치고 자신의 노란 꽃잎 속에 잠든 노랑나비를 포근히 감싸주었어요.

구월이 되었어요.

별이의 얼굴은 싱글벙글. 수세미외 열매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어제 유치원에서 자랑을 했거든요.

“내 수세미, 얼마나 크고 예쁜지 아니? 깜짝 놀랄걸.”

별이는 마당에 나와 주렁주렁 매달린 수세미외 열매를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어?”

맨 꼭대기에 작은 수세미외 열매가 하나 달려 있어요. 해님과 구름과 바람과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듯해요. 별이는 목을 길게 빼고 그 모습을 오래오래 쳐다보았습니다.



삶을 향하여

사람은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느끼기도 하며 고통과 외로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광야'의 체험, 곧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어려웠던 순간 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대해 적어보십시오.

남편을 살려주세요

여애경(가타리나) · 1학년

2005년 어린 두 딸은 시집에 맡긴 채 직장에 급히 2주 휴가를 내고 남편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야 했다. 남편의 심장 수술 때문이었다. 나는 친정이 있고 시설이 좋은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외국인인 남편의 마음의 안정을 생각해서 곁에서 가까운 필리핀으로 결정했다. 필리핀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픈 남편과 나 그리고 한 시간쯤 걸리는 병원과 호텔을 오가기 위해 고용한 현지인 운전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광야였다. 수술을 앞두고 나는 두려움을 숨긴 채 남편을 위로하며 씩씩한 척 했다. 그리고 수줍은 사랑고백도 했다. 수술 당일 준비실로 들

어가는 남편에게 성수를 뿌렸다. 그리고 내 목에 있던 스카플라를 풀어 축늘어진 남편의 손목에 감아주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주님, 당신 손에 남편을 맡깁니다. 그가 살든 죽든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저희의 어린 딸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데려가셔야 한다면 대적할 자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남은 가족들을 당신께서 책임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나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병원 복도를 서성거렸다. 어린 두 딸을 두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병원 2층에 있는 성당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기도했다. 수술실과 성당을 번갈아 가며 서성거리는 동안 수술이 끝났다. 유리창 너머로 웃음으로 응답해 주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기는 날 휠체어에 탄 남편과 함께 성당에 가서 감사를 드렸다.

어느새 8년이 지난 지금,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할 때가 있다. 그때 주님께 드렸던 기도 “그저 살려만 주세요, 주님!”을

잇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유익함을 아신다는 것을. 비록 내가 당신의 은총을 망각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아들을 지켜보면서

김종숙(리오바) · 1학년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였다. 아기 때부터 우유를 먹으면 입 주위가 헐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손에 진물이 생기고 가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인 고3 때는 수능 준비는 뒤로 하고 얼굴과 손에 심한 가려움과 상처를 남기는 아토피성 피부와의 전쟁으로 하루하루 우울하게 지내왔다.

교대에 들어가서는 더욱 더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다. 한창 청춘의 싱그러움과 연애를 즐겨야 할 시기에 여전히 상처 난 얼굴과 손을 감추려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을 느꼈다.

드디어 군 입대를 앞두고 결정을 내려

야 했다. 다행히 공익요원으로 판정을 받아 집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다. 그동안 먹었던 병원 약을 줄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지만 2년 뒤부터 차츰 진정되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음식과 운동, 건강한 생활습관,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강한 마음, 무엇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힘든 시간을 잘 견뎠다.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다. 간혹 상처가 돌아나기도 하지만 아들과 함께 걸어온 그 광야의 길은 아들과 나의 기나긴 인생의 길을 씩씩하고 지혜롭고 감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로운 '광야'였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요, 예언 사명을 완수한 예수는 오늘도 당신 마음에 두었던 사람을 특별히 부르고, 당신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파견합니다. 내가 예언직을 수행하여 할 구체적인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 체험한 것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먼저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황미남(헬레나) · 1학년

우리 집안에서는 나와 아이들만 신자

이고, 다른 가족은 아무도 신자가 아니다. 늘 혼자서 봉사활동, 미사 참례, 성지순례를 하면서 남편도 전교하지 못한 것에 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다. 감실 앞에 앉아 하느님 안에 있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 자주 성체조배를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남편과 친정·시댁 식구 중 한 사람이라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던 중, 지난 7월 8일 시어머니께서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으로 닷새 만에 하느님 나라로 떠나셨다.

상태가 위급한 7월 7일 밤에 신부님께 어머니의 대세를 부탁드렸다. 사소한 일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에 어디서 그런 용기와 결심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어머니께서 떠나시기 3일 전에 “나도 너 따라 성당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좀 나아지면 저랑 같이 가요.” 했던 것이 용기를 내게 한 것 같다.

밤 11시가 지난 늦은 시간이었지만 신부님께서 포항에서 대구까지 오셔서 세례성사·견진성사·병자성사까지 주셨다. 그 전에 남편과 시동생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걱정했다. 남편은 선뜻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과 2년 전 성당에 가고 싶어 하셨지

만 성당이 없는 시골이라 「가톨릭기도서」를 사 드렸던 일을 말했더니 남편과 시동생 내외 모두 세례받기에 찬성하였고 장례미사까지 할 수 있었다. 장례미사에 참석할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 느꼈는데 내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어서 기뻐다.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연령회 회원들이 송화원까지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가족과 친지들 모두 감동하였고 고마워 하셨다.

7월 말 주일학교 여름신앙학교를 모두 마치고 조용히 성경을 펴고 앉았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8시간 전에 ‘바울라’라는 이름으로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났는지, 시댁에 가면 어머니가 우리를 환하게 웃으며 반기실 것만 같다. 매일 미사 때마다 어머니를 위한 연미사를 봉헌을 해서 어머니 이름과 세례명으로 기도가 봉헌되어지면 가슴이 너무 벅차다.

하지만 함께 미사 참례를 해보지 못하고 성지순례도, 본당 활동도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 조금 더 일찍 세례를 받고 어머니와 나란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은 점점 더 커졌다. 그래서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한 것을 본당 어르신들께 해드

리기로 마음먹었다.

가까이 계시는 어르신들께 먼저 다가
가 웃음으로 인사드리고, 미사 때 보편
지향기도도 같이 하자고 권유하고, 우
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 신앙체험 이야
기를 많이 해 달라고 한다. 성소후원회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도 드리고 점심식
사도 함께하며 ‘어머니도 함께하세요.’
하며 마음속으로 기도도 한다. 이렇게
어머니께 못해 드린 일들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이제 천국에서 새로 태어나신
어머니가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기
도드린다. 아울러 남편도 빨리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고 청하고
또 청한다. 이렇게 좋으신 하느님을 왜
빨리 만나지 않게 하시는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매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뿐
임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내 편인 어머니
가 계시니 너무나 든든하다. 어머니께서
도 하늘에서 나를 위해 아니 우리 모두
를 위해 기도해 주시리라 믿는다. 어머
니로 인해 남편과 시동생 가족 모두 신
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계
속 기도할 것을 어머니와 약속한다.

‘오늘도 성모님 앞에 앉아 묵주를 돌
리며 전구합니다. 당신이 원하실 때 저
희 가족 모두를 불러주소서, 아멘.’

조금씩 일상에서 느껴지는 변화

조혜인(엘리사벳)·1학년

‘예언직·예언자’라는 단어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과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라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
서 부분을 공부해 보니, 예언자는 지도
자 같은 역할을 한 것 같다. 왕이 있었
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분
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직을 수
행해야 할 자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 ‘미래에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이미 이 세상에서 앞당
겨 살면서’라는 문구가 크게 와 닿는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이
미 앞당겨 사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시
끌벽적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고요히
머물며 기도해 보려고 해도 어느새 생각
은 그날 하루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만났던 사람들, 해야 할 일 등에 가버리
고 만다. 또 그런 시간을 따로 내는 것
조차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그
렇게 비신앙인처럼 기도도 말씀 읽기도
거르고 지나는 날도 많다. 그래도 요즘

은 청년성서모임이며 통신성서를 하다 보니 조금씩 내 일상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인 것 같다. 무엇보다도 낮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 하느님께 받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을 습관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늘 조금 급하고 예민하고 우울했던 내가 많이 웃고 먼저 말도 걸고 밝고 기쁘게 생활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때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뿌듯하다.

보물로 바뀔 남편을 기다리며

유은숙(데레사)·1학년

제 남편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합리화도 강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일하면서 화를 잘 내고, 한번 화내면 오래 가는 남편이 무서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서러움에 겨워 자주 울기도 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수백 번 이혼도 생각해 보았으나 저를 이해해 주고 위로해주는 아이들이 있어 그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미사」를 읽다가 보물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깨닫고,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농부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론 신기하게도 화를 내는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던 제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휴대폰에 남편 번호를 저장할 때 아이들은 '서방님'이라고 입력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애들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미사」를 읽고 난 후 '내 보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7월 구약입문 연수에 다녀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겨울 연수가 또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연수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던 날, 남편에게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남편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남편도 아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점심 밥을 미리 해놓으면 맛이 없으니깐 평일미사 가기 직전에 발של 스위치를 켜야지 하고선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성당에 가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큰

일 났다 싶어 기도를 했습니다. 일터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화를 버럭 낼 줄 알았는데, “밥도 안 해 놓고 갔더라.”라고 고만 해서 놀랐습니다. “미안해요. 잘해주려다가 그랬어요.” 했더니 “내가 해서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성당에서 성탄까지 모세오경을 필사 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레위기 10장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은 없고, 조금 쓰고 나면 어깨와 손가락도 아픈데, 지금까지는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얼른 쓰다가 남편이 오면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조금 보긴 하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달라질 수 없겠지요. 하지만 남편을 무서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하면서 남편에게 다가가면 언젠가는 진심이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시대-교회의 시대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삶의 자리를 잃고 세례성사로 이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예를 적으십시오.

내 삶의 변화가 곧 선교

남지원(가브리엘라)·2학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던 바오로 사도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된 사건이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다른 종교의 철학적 사고에 심취하다 극적으로 하느님 사랑을 깨닫게 된 저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오로 사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유난히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무신론자였던 때가 있었기 때문인지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을 보면 그들이 왜 하느님을 거부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 들지 않게 하느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 신앙이 없는 친구들에게 “하느님을 믿어봐!”라든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제가 봉사하는 단체에서 있었던 일 등 삶과 직결된 이야기들

을 나누면서 가끔 그 친구들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듣습니다. 제가 한동안 거듭되는 실패로 좌절과 실망 속에 있다가 결국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본 한 무신론자 친구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니, 네가 믿는 하느님이란 존재가 있긴 한가 보다.”라구요. 그 친구는 저의 모습에 놀라워했지만 저는 그 말을 한 친구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교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 의탁하며 극복해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신적·물질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먼저 내 가족 안에서

최은아(도로테아)·2학년

저는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무척 힘이 듭니다. 딸아이와 다르게 장난꾸러기인

아들 덕에 주위 사람들에게 사과도 많이 하고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교재에 나온 체험담처럼 저도 매일미사에 참여하면서 힘을 받습니다.

어느 날 강론 때 신부님께서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엄마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건 좀 심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들 때문에 제가 힘드니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여겼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미사에 참여하면서 묵상하다 보니 아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아들을 기다려 주지 못하는 나, 몸이 피로하다고 아들을 볼 때마다 짜증을 부렸던 나 자신이 십자가임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여섯 살인 아들은 날이 갈수록 개구쟁이가 되어갑니다. 단순한 장난만 아니라 소리 지르고 울고 물건을 던지고... 재속회 연례피정에 다녀오면서 제가 아이를 제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 아이의 불만이 커지고 그래서 행동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피곤하면 아이가 밖에 나가 놀자고 해도 그냥 달래서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심한 말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은 눈 뜨자마자 자전

거를 타러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눈이 떠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혼자 세수하고 옷 입고 신발까지 챙겨 신고는 자전거를 끌고 가려 하더군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자전거를 옮겨주니 “엄마, 잠깐 얼굴 좀 대봐.” 하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저는 힘들고 피곤하다며 아들과 딸,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혀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행로를 불태우듯 말로 힘들게 했어요. 이제부터 하느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힘이 되는 말 한마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작은 기부와 후원을 통해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준비해야겠어요.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라고 하신 1베드 2,12의 말씀처럼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에게 제가 먼저 바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작은 부분부터 가족을 이해하고 희생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다짐을 덧붙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바오로 사도 설교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에게 의미 깊게 다가오는 점을 적으십시오.

영원한 삶

한진호(안드레아) · 5학년

몇 년 전, 단체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고 이태석 신부님의 강의 테이프를 함께 들은 적이 있었는데, 순수하고 진솔한 그분의 강의를 통해 부활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신부님은 돌아가셨지만 강의를 통해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이것이 바로 살아 계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문혔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나셨고, 비천한 것으로 문혔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나’(1코린 15,42-43)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혼자 깊이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신자인 아내와 결혼하고 4년 후에 아내의 조당을 풀어주기 위해 1987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생기지 않아 성사생활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4년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고인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다는 말

을 믿고 재회의 일념으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신앙의 큰 은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환하면서 수많은 성인 성녀의 부활과 제 아내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죽음을 통해 제가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는 천국에서 아내를 다시 만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저에게 주신 이 큰 은총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구원의 잔을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네.”(시편 116,12-13)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글로 쓰거나 잡지나 신문 기사에서 오려 붙이십시오.

그날을 기다리며

박 속(마리아 막달레나) · 6학년

저는 딸이 귀한 예술가 집안의 셋째로 태어나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3살 때 한옥에서 부엌과 방으로 나 있는 쪽문으로 기어 나 오다가 국물이 펄펄 끓는 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3도 화상을 입고 언어기능과 운동신경이 마비되자 가족들은 어린 생명을 포기한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를 들쳐 업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저를 극진히 간호해 주시고, 좋다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저를 살리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는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목숨을 부지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장애로 힘은 들었지만 다행히 지능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교육열이 높으신 어머니의 정성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장애자를 선뜻 받아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기쁨은 취직으로 이어졌지만 언어장애자인 저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제가 안내를 할라치면 “다른 사람 없어요?” 하며 이상한 눈으로 저를 아래위로 훑어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

슴을 에는 서러움에 혼자 울어야만 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냉대를 견디다 못해 직장을 그만둔 저는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살려주셨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지요.’ 하며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때론 평평 울기도 했지만 답답한 마음은 쉬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모님께서 방황하며 절망하는 제 곁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장에 3급 판정을 받고 취직이 쉽지 않아 다시 편입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오묘하게도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양가의 반대에 부딪쳐 또 한 차례 고통을 맛보았지만 남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저희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안양으로 이사 온 저는 성당 반모임에 갔다가 진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친교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여 몇 년 동안 정리하지 않았던 교적을 단번에 옮기고 열심히 반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가장 든든한 힘이신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반교우들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다정하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

던 시어머니께서 뇌암으로 7년을 앓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던 시아버지마저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몇 달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는데, 연이어 부모님을 여의자 막내아들인 남편의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술로 달랬습니다. 남편에게 세례 받기를 애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느님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옆에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이의 사춘기까지 겹치니까 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그 집안의 보물인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격하여 그 자매님을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작은 다툼에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던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통신성서를 알게 되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던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참된 행복의 실마리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성체를 모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성체를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 마리아 막달레나.” 하시는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 하마터면 “감사합니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미사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며 은총이라는 것을 저는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저는 불평불만 속에 저 자신을 빠트렸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성물방에 들렀다가 송봉모 신부님의 「상처와 용서」를 보게 되었고, 그 후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느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면서 고통이 은총이고,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 같은 장애인도 직장을 가질 수 있다며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원서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행정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 제가 어찌 이런 직장을 가졌겠습니까?

남편은 평화방송을 보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황창연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니 옆에 와서 함께 들으며 웃었습니다. 신자인 직장 상사한테 황창연

신부님의 강의를 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왔다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겠지요. 지금은 거부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술을 마시면서도 큰 병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지요. 언젠가는 하느님을 받아들여 같이 성당에 가는 날이 오겠지요.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불편한 장애가 있기에 하느님께 매달려 기도할 줄 알고, 더욱 열심히 신앙을 지켜갈 수 있으니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박 숙 자매님은 2013년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주최 ‘신앙의 해’ 신앙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희망’을 수상하였습니다.)

바오로의 '침묵의 세월'에 관한 교재 내용이나 성경 본문을 읽고, 내 삶에서 바오로의 '침묵의 세월'과 유사한 체험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다시 살아났으니...

박영숙(마르타) · 성바오로 신학영성 2학년

2010년 8월 13일 금요일 한여름의 맑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10시 10분경 저는 성당 앞 8차선 도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총총히 걸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가는데, 오른쪽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온 트럭이 저를 들이박았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10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 이제는 정상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고 당시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갈비뼈 6개 골절, 오른쪽 발목 골절, 머리와 심장·척추·신경 손상이 심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쳤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자부하던 저는 그 긴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매일 “하느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난 세월, 하느

님의 뜻을 찾는다면 저도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찾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교묘히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탑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고, 순식간에 죽음에 직면한 저는 하느님 앞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결실 없는 삶의 허망함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가벼운 사고에도 전신이 마비되어 평생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며 살아야 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말끔히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저를 살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성모님의 도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여 오랫동안 뒤로 했던 성바오로 신학영성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는 제가 좋아하는 성인인데, 공부를 하면서 더욱 힘이 됩니다. 대가족의 3남3녀 중 둘째로 태어난 저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센 편이며 뭔가 독특한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과 명예·학벌·외모·직위 등등의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며 겸손과 믿음으로 순명하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하신 바오로 사도처럼 살고자 합니다. 매일 살아 있다는 고마움을 봉헌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4-5)

위의 성경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고백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들어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으로 가르치십니다.(마태 22,34-40; 마르 12,28-34; 루카 10,25-28) 현재 나의 삶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고자 희망하는지 적어보십시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느님

강정규(수산나) · 이려닝학습 1학년

하느님은 내 삶에서 늘 나와 함께해 주심을 굳게 믿으며 살아간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 가족을 통해서 친구와 이웃을 통해서 때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관면혼배를 통해 외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로 교사로 주부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 날 나는 쉬는 교우라 불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10여년간 하느님을 외면한 채 내 나름의 행복(?)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

느님께서는 행여 내가 하느님을 잊을새라 살아 계신 예수님을 내 곁에 두게 하셨다. 우리 외할머니!

돋보기 너머로 깨알 같은 성경을 귀통이가 닳도록 넘기셨으며 묵주알은 윤이 나도록 굴리신 분. 하느님을 등지고 사는 나로서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괴로움과 미안함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즈음 마지못해 슬그머니 하느님을 향해 돌아앉게 되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낸 후 성당으로 돌아간 날, 나를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나를 움직이게 하였음을 깨닫고 교만함으로 가득 찬 내가 부끄러워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로부터 하느님의 축복이 더해져 두 아이와 남편까지 세례를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바쁜 일상은 계속되었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느님께서 나를 내동댕이치셨다.

우리 가정을 완벽하리만치 자상하게 잘 이끌던 건강한 남편을 6개월 만에 암으로 잃게 되었다. 나는 절망의 구렁이에 깊이 빠졌고 하느님도 보이지 않았으며 만약 계신다 하여도 나를 한없이 사

랑하시는 하느님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이해되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캄캄한 고통 속에만 쓰러져 한 달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십자가 앞에 하염없이 눈물짓고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문득 강렬한 한줄기 빛을 따라 은은한 소리가 들렸다. 나를 갑자기 벌떡 일으켜 세우게 하는 희망의 소리!

“수산나!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너의 하느님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왔을 뿐인데 너는 어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만 하느냐? 아직도 네게는 아흔 아홉 가지가 남아 있지 않느냐?”

참으로 따뜻하게 나를 달래는 하느님의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다. ‘그래, 내게는 나를 항상 지켜보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느님이 계시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도 있고, 거리로 나 있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직장도 있으며 한결같이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봐 주는 친척·친구·이웃도 그대로 있는데...’

대학 재학 중인 딸이 미국 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였다. 난 속수무책이었다.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며 어떤 학교를 선택

해야 하는지 몰라 속만 태우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다. 교육 연수를 마치고 밤늦게 집을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무려 26년 전 초임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교사였는데, 미국생활 24년 만에 세 번째로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내 소식이 궁금해 친구들을 통해 어렵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한다는 거였다. 그는 보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 경영실장까지 한 능력 있는 인재였고 보스턴에 자리 잡고 산다 하였다. 그 인연으로 딸은 미국 보스턴으로 연수를 가게 되었고 지금은 거기에서 직장까지 구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 시점에 그런 사람을 보내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돌만큼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느님께 받기만 해서야 되겠나, 나도 양심이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6년 전 어느 날 용기 내어 4년 과정의 성경공부반에 등록해 주 1회 수녀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열심히 공부하려 마음먹었지만 근무 후 밤 시간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몸이 쉬는 시간이었고 덕분에 난 제일 잘 조는 학생이라는 오명만 붙은 채 겨우 수료했다.

그래서 퇴직 후, 이제는 제대로 해보

리라 결심하며 성바오로팔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에 등록하여 김계홍 신부님의 체계적이고 명료한 강의를 기쁘게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 단체에서 신부님을 모시고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다. 나는 앞뒤 생각은 접어두고 일단 따라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아! 하느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해 또 이렇게 마련하시나 보다.’ 그 생각이면 충분하였다. 모든 것은 그분께서 알아서 준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난 4월, 2주간의 성지순례 동안 정말 많은 감동과 기쁨으로 가슴을 채우고 돌아왔다. 또 하느님의 섭리였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이처럼 매순간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 애쓰고 있다. 세상적인 온갖 욕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문제 없다며 가볍게 넘기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늘 깨어 하느님의 뜻에 맞갖은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는커녕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다가 조금만 힘들면 금방 투덜거리기만 하는데도 하느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다독

여 주신다.

영원한 나의 하늘이신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조사(창세 12-50장)의 주요 인물들인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나에게 와 닿는 한 인물을 택하여 묵상하고, 그에 비추어 본 ‘나의 신앙 여정’ 또는 희망(결심)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종현이를 보낸 후

김영희(리오바) · 이려닝학습 3학년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응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나이가 백 살이나 되어 얻은 아들 이사악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이해가 갑니다.

아브라함은 소중한 아들을 주신 하느님께 늘 감사드렸지만 어쩌면 아들이 존재하기에 드리는 조건적인 감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이런 조건적인 믿음에 빠져 있을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악을 죽일 의도가 없으셨지만, 하느님 당신이 아닌,

하느님이 주신 선물에 더 빠져 있는 삶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 깨달음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에게도 일깨워 주시려고 그 옛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전에 임신을 먼저 하게 되었고, 아무리 결혼할 사이지만 처녀가 임신했다는 부끄러움에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결혼하였고, 곧 아기가 생겼지만 심장 박동 소리가 안 좋다는 의사의 말에 또 낙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이를 다시 갖게 되었고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해맑았고, 까르르 잘 웃고, 밥도 잘 먹고, 무척 영리해서 우리 부부에게 큰 자랑이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아이를 올바른 가치관으로 잘 키우고 싶어 성당을 찾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듣고 올바른 가치관을 잡아갈 수 있다 생각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하느님께 늘 감사드렸지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며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고, 제게 신앙이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지, 하느님이 우선이라는 믿

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허표으로만 하느님을 찾았지요.

아이가 여섯 살이 되던 해 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무수한 시간들을 버티며, 하느님께 이 아이를 낫게 해 달라고 매달렸지요. 그때도 '남들은 자식 공부 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아이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니,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생활을 하면서도 쑥쑥 자랐고, 성격이 모나지도 않게 온순하고 영리하게 자라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길고 긴 치료가 막바지에 이르러 갈 때 의사의 실수로 항암제가 잘못 주사되면서 아이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아홉 살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제 자신보다 사랑했고, 하느님조차도 그 아이를 위해 필요했는데 그 존재가 사라지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그리워 매일 죽을 생각만 하고 지내다가 주님께서 그 아이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주님을 향한 원망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왜 그 아이를 데려갔냐?'고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게 먼저 왔다면 아기들이 생각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죽

였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을 죽인 의사를 처벌하기보다 사람의 실수로 황망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의료사고를 보건복지부와 신문, 방송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요구가 점점 발전하여 아들의 이름을 딴 '종현이법'이라는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달라는 문자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올해 4월 9일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그날 1만 명 문자 서명 받은 것을 오제세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여러 분이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을 발의하려고 초안을 만드는 중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안전 종합대책을 세우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마련하시려고 종현

이를 일찍 끔찍한 방법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에 눈이 멀어 하느님을 모르는 저를 보며 가슴 아파하셨고, 종현이가 제 앞에 있는 한 평생 하느님은 1번일 수 없다는 걸 아셨을 것 같습니다. 종현이의 구원을 통해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통해 제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약을 번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자주 상상해 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기에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그 안에 머물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09년 8월 21일 조훈현 국수와 바둑을 두는 종현. 프로 바둑기사가 꿈이었지요.

가족 안에서 만난 하느님의 섭리

윤숙진(헬레나) · 이려닝학습 3학년

청년성서 창세기 공부를 하고 연수를 갔다. 멋모르고 봉사자가 가라고 하니 까 그냥 간 그 연수에서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나의 신앙은 참 미지근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나였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창세기 속 성조들은 나하고는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연수에서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요셉의 생애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나중에 그 고생이 영광으로 나타났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겪는 고통과 고생이 하느님께서 무엇에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를 뿐이다.”

내 인생의 60%가 고통이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앓을 보지 못하셨다.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질병으로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셨다. 짧은 시절 감기에 걸려

아스피린을 복용하셨는데 약물 부작용이라고 했다. 내가 기억하는 아빠는 항상 누워 계시면서 담배만 피우셨다. 자존심이 강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셨는데, 그것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오빠는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났다. 다운증후군 가운데에서도 중증이어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내 이름만 부를 수 있었다. 오빠는 누가 화장실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불일을 볼 정도로 남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사춘기가 되면서 나의 마음은 절망감에 빠져 들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남들과는 다를까? 다른 가정은 평범한 부모님에, 아무 문제 없는 형제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무슨 저주를 받은 것일까? 엄마는 약한 몸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고, 남동생은 온갖 비행으로 집안을 발각 뒤집어놓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 “나 같으면 죽어버렸을 거야. 참 대단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 그런 벌을 만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지 그들은 모르는 걸까?

하지만 하느님께서 참 오묘하신 분이시다. 지금은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이 계속될 즈음 엄마는 건강 때문에 휴직을 하시고 집에 계시게 되었다. 그동안 엄마와 아빠는 많은 대화를 하시며 엄마가 진심으로 아빠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두 달 후 아빠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

집에서 더 이상 오빠를 돌볼 수 없어 시설에 보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갔지만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 시설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집에 와 있게 되었다. 오빠는 보살핌이 많이 필요했지만 나에게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때가 8월이었다. 그리고 10월에 오빠의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서울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이미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나는 오빠를 간호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고 울부짖었다. 오빠는 많이 힘들고 아팠을 텐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저 천사 같은 미소만 내게 보여주었다. 옆 침대 환자분의 보호자가 나에게 “그만 오빠를 보내줘라, 편하게 갈 수 있게.”라고 했다. 오빠는 12월 1일에 하늘나라로 갔다. 오빠는 얼어버린 내 마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떠났다. 아직도 오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거리에서 오빠와 같은 다운증후군 환자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둘 같이 굳은 마음에 사랑을 심어놓고 간 오빠가 오늘도 난 그림다.

그리고 젊은 시절 그렇게 고생했던 요셉처럼 나도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문제아였던 동생이 착실하게 직장에 잘 다니고 있고, 엄마는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시다. 아빠와 오빠가 더 좋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아직은 나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의도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시 온다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처럼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느님 사랑 체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윤성규(바오로) 부제·안동교구

안녕하세요? 안동교구 풍기성당 윤성규 바오로 부제입니다. 현재 저는 통신성서교육원 구약중급 과정 평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나 약간의 떨림도 있습니다. 얼마 전 교육원 수녀님께서 저에게 글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마 수녀님께서 저의 체험을 통해 통신성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001년 6월 29일 암 병동 간호사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0년 가을 혈액암 4기의 진단을 받고 병원생활을 하였는데 그 병원이 서울성모병원입니다. 지금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신자가 아닌 제가 가톨릭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하느님의 이끄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

니다. 그 당시 저는 가톨릭은 물론 신부님, 수녀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생활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현세적인 그 무엇들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암 환자들을 돌보는 신부님·수녀님·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저는 강한 그 무엇을 느꼈습니다.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저 역시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기에 그분들의 삶의 모습은 나의 온 존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는데,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며 살지 못했는데….

그때 저를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건강해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당신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때의 기도는 울부짖음이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살려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루카복음서의 돌아온 작은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겐 그분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매달릴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자원봉사자 선생님(세례 받을 때 대부가 되어주심)께 교리를 받았고, 6차레 항암 치료로 관해 상태에 들게 되어 자가이식(조혈모세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병원비 그리고 확실치 않은 나의 상태, 자가이식을 받아도 낫는다는 보장도 없었지요. 수많은 친구들과 은인들의 기도와 도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해지는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 모든 것이 그분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가이식을 위해 무균실에 들어갈 때 저는 성경, 묵주, 가톨릭 기도서, 성경을 필사할 공책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가이식 중 몸 상태가 좋을 때는 루카복음서를 필사했고, 힘들면 누워서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도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뿐이었습니다. 저는 병과 싸우는 무균실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많은 시간을 기쁨 속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신비입니다. 고통 속에 기쁨이, 그러나 이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알 수 없는 평화가 저와 함께하였습니다. 말씀은 기쁨과 평화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자가이식을 마치고 병원 간호사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빠르게 좋아지면서 매일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시골에 내려와 본당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쁨을 느꼈지만 무엇인가 허전했습니다. 그분께 대한 갈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본당 수녀님이 추천해 준 것이 바로 시청각통신성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조금씩 체험하는 과정 안에서 저의 신앙은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갈망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기뻐했지요!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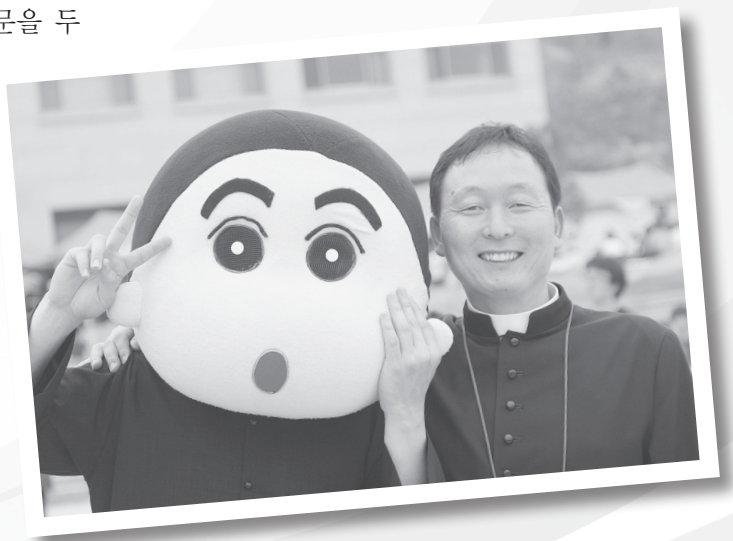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을 통한 성경공부는 저에게 많은 기쁨과 힘을 주었습니다.

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 안에 사제성소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사제성소를 생각했지만 두려움이 너무 커서 계속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제의 삶을 살 자신도 없고 더 더욱 현재 나의 건강상태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제성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밀어내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분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응답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슴이 뛰고 온통 그 생각만 났습니다. 그러다가 수도회 성소모임에 참여했는데 제 예상대로 사제성소의 삶을 살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때 저에게 큰 힘을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공동번역: 루카 11,9-10)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청각통신 성서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연

수회에 참여했는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수녀님들이 연수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말씀 사탕을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미사 때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저는 내적으로 많은 갈등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사제성소와 현실 안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무척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낭군이라고 부르리라.”(공동번역: 호세 2,18)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분께 의탁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내 안의 부르심을 그분의 뜻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제성소를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참 간절했고 어느덧 마음 한 곳에 존재하는 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더불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자가이식 후)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부제품을 받았고, 2013년 12월 29일 안동교구 주교좌 목성동 성당에서 사제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때의 통신성서와 인연으로 평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답안과 나눔을 읽으며 제 스스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그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때 제 마음은 평화롭고 따뜻해집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임을 제 삶을 통해서 그리고 통신성서 동반자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저는 또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신 분들

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제품 때 주교님이 복음서를 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가 봉사를 돌아보며

고길석(프란치스코) · 17년 평가 봉사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 만남이 떠오르며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영향을 주었던 인물과의 만남, 감명 깊었던 책과의 만남도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 20대 후반 시청각 통신성서교육원과의 만남은 그 인연이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세상살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신앙생활 역시 밑바탕

에는 교육원과 함께한 시간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느덧 50대 중반을 달려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 새해 초에 교육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성경 평가 봉사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아울러 졸업생이 늘어남에 따라 봉사자가 많아져 봉사를 오래하신 분은 후배를 위해 양보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양보해야지요.” 하면서 잠시 돌아봤습니다. 통신성서와 인연을 맺은 날부터 오늘까지를 돌아보자 감사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의 삶에서 유난히도 힘들었던 20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저에게 신앙의 영적인 스승으로 다가왔던 곳이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입니다. 1986년 1월 부산 대청동 바오로서원에서 구하고자 했던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통신성서 안내장을 접한 후 오늘까지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과 고통스러웠던 청춘을 위로받고자 시작한

공부는 입문 2년, 중급 4년의 과정을 마치고 1992년 제3회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평가자로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바오로 신학영성 2년 공부도 같이 병행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8년 과정을 이수했으나 평가를 하면서 부족함을 느껴 잠시 평가를 쉬며 서울 가톨릭신학원의 통신교과과정 1단계 2년 과정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평가 봉사는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배웠던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가톨릭 신학원의 2단계 공부는 그만두고 다시금 평가 봉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힘들었다고 했던 20대 후반의 문제는 직장관계였습니다. 위로받고자 했던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1988년 부산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이제까지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지면을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짧으면 1년, 길면 2년을 문제집을 매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평가 봉사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참고답안 위주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 제 힘에 겨웠던 질문을 하신 분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도 교재와 참고도서를 통해 답할 수 있었습니다.(참고로 평가를 시작한 후 교육원으로부터 많은 도서를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도 책장에 꽂혀 있는 대부분의 신심서적은 교육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가의 백미는 문제집 마지막 나눔터가 아닐까 합니다. 그곳에서 평가자와 학생은 서로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공켈이 말한 ‘삶의 자리’를 전해 듣게 됩니다. 저는 평가하면서 가능한 나눔터에 정성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간혹 한 학기 내내 공란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문제집에도 매달 전례시기 등을 중심으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분은 연세가 지극히시고 수도권 어느 본당에서 사목회장을 하신 분인데, 매달 답안을 정성껏 작성해 마감일 안에 보내셨습니다. 나눔터를 통해 신앙과 삶에 대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절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더군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평가자인 제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즈음 성경공부가 많이 활성화되어 교계에서 인정하는 공부과정이 몇 있습

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정해진 날에 일정한 장소로 가야 하는 집합교육입니다. 집합교육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각자의 삶에서 집합교육 시간에 빠지지 않고 40주, 100주를 공부할 수 있음은 성령의 은총일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기에 통신성서가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집합교육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통신성서가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공부를 권유하면 과정이 길다(입문 2년, 중급 4년)는 말을 간혹 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익힌 것은 그만큼 빨리 잊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과정이 결코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는 각자가 찾아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대엔 인터넷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었습니다. 스스로 결심만 한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구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힘든 현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대상들이 워낙 관심을 끌기에 일관되게 가톨릭 신앙에 매진하는 게 쉽지 않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기에 통신성서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함께할 수 있음은 개인적으로 큰 도움의 은총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믿음은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 개선이 아닐까요? 그 관계 개선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통신성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며 수고하시는 교육원 모든 분들께(많은 분들이 떠오르지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평화 안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전국 통서가족 피정에 다녀와서

곽미숙(도미니카)·성바오로 신학영성 2학년

미국·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수원·대전·의정부 등등, 글로벌하게 모인 우리 통서가족 피정이었습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단풍도 슬슬 가지개

를 켜고 있는 가을의 지리산이라니! 안타깝게도 제가 속한 서서울 가족들은 본당 행사와 겹치는 분들이 많아 참석자가 3명뿐이어서 중서울 가족과 합류했습니다. 캐롤린 자매님이 새벽부터 준비해 오신 주먹밥에 레베르타 회장님이 아기가기하게 주머니에 담아 오신 간식을 먹으며 시청에서 1차, 철산역에서 2차로 모여 지리산 피아골로 향했습니다. 운전 을 해주신 요셉 형제님의 부인 마리아 자매님이 마련해 주신 맛난 밥을 휴게소 풀밭에서 먹는데, 피정하러 가는 우리들을 축복하는 듯 마침 옆 벤치에 요들송 동호회 분들이 앉아 깜짝 찬조 출연을 해주셔서 풀밭에서 밥을 먹는 건지 유명 레스토랑에서 먹는 건지 황홀했습니다. 배려는 기본이고, 재주 많은 분들 덕분에 저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암체족도 눈치 보지 않고 대접받는 즐거운 여행길이었습니다. 하모니카 소리에 취하고, 기도에 취해 6시간 넘는 길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멋진 분들과 즐겁게 놀다 차에서 내리니 멋지고 대단하신 동문들이 와글와글 왁자지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처음 온 곳의 맑은 물, 맑은 공기,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시는 주

님의 기운!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천국은 아마 이런 곳일 겁니다. 끝없이 이어져도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기쁨의 공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삶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조금 하다 지치는 사랑이 아닌,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김영권 신부님의 강의가 며칠 전 8년 과정의 마지막 과제를 제출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저를 다독이며 세워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공부를 하고 바오로 영성을 묵상하면서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해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는 슬픈 모습의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들은 영성 강의 중에서 “무엇을 하면 힘이 납니까?”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하면 힘이 나지? 뭘 해야 슬프기만 한 나를 웃게 할 수 있지? 왜 나는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운이 저를 감싸는 그곳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동문들을 만나니 힘이 생겼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음을.”(에페 1,4) 다락방 기도에서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내가 생기기 전부터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니, 이런 나를? 어리석은 도미니카! 깨어나야지? 성체조배실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과 나! 참 좋았습니다. 이토록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감동이 가득한 공간에 함께하고 싶었을 김희자(젬마) 자매님(성바오로 신학 영성 2학년 재학 중, 2013년 9월 27일 갑자기 선종)이 몹시도 그리웠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도 그리움이 될 그때가 오면 누군가 나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까요? 젬마님은 정말 천국에 있으리라 느껴집니다. ‘도미니카! 더욱 사랑하며 열심히 살고 와. 먼저 네 자리 마련하고 기다릴게.’ 하시는 듯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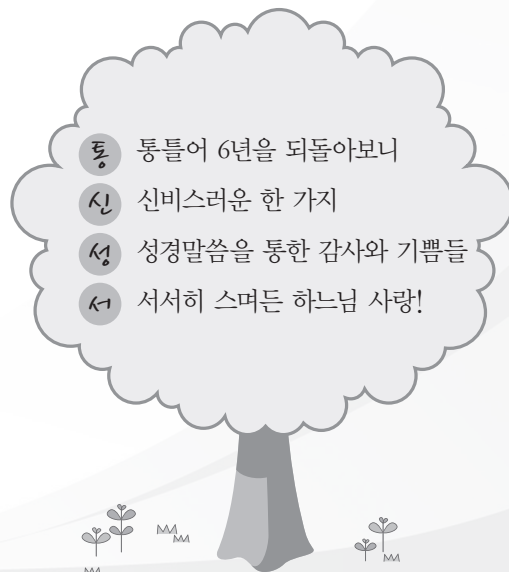
시간이 어찌 가는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고, 같이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갈 길이 먼 고로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모두들 저처럼 주님의 따뜻한 기운에 행복하셨나 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성가를 부르다 보니 성령

의 함께하심으로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창문을 열고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은 그곳에서 제가 느낀 감동이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다 음에는 그 진한 감동을 함께 느끼실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수고하신 황선주(토마스 아퀴나스) 전 회장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리를 마련하시고 기

도부터 준비, 마무리까지 완벽하신 수녀님들, 사랑해요. 그리고 ‘잃었던 아들’ 연극을 준비해 주신 카페 운영진들, 감동이었어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 나는 성경공부 체험담

복음사가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이만실(요한 크리스토토모) · 평가자

어르신만을 위한 성경공부와 교재가 없던 시절 성바오로팔수도회 수녀님께서 권유한 '새로 나는 성경공부'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림 그리기와 함께 심리 치료를 곁들인 성경공부였다. 어르신에게 관심이 많던 나는 '새로 나는 성경공부' 교육에 빠짐없이 등록하여 준비했으나 당시로서는 성경대학이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일회성, 간헐적으로 운영되었고, 봉사자들에 대한 인식도 미약하여 성경대학 개설이 힘든 시기였다. 그럼에도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새로 나는 성경공부'가 인식되고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광주대교구는 「마르코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가 발간되고 봉사자 교육을 함으로써 본격적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지신 신부님들을 통해 성경대학을 개설하는 본당이 차츰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주로 강사 한 사람이 지도하는 여타의 성경공부와는 달리 '새로 나는 성경공부'는 그룹별 봉사자가 필요한데, 파견할 봉사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한 봉사자가 여러 본당에서 봉사해야 한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우리 주님을 참되게 만나고 알고 믿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면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를 지복직관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많은 봉사자가 배출되길 희망한다.

광주대교구 '바오로팔 새로 나는 성경공부반' 운영은 본당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오전에 실시한다. 1교시는 강의, 2교시는 레크리에이션, 3교시 때 깊이기를 하고 점심식사로 마친다. 연세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굳어진 심신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풀어드린 다음 배운 내용을 심화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봉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 우리 눈에 놀랍게만 보이ना이다.' 하는 찬가가 절로 흘러나옴을 느끼곤 한다.

첫 시간, 이제부터 '어르신들 이름으로 된 복음서'를 한 권씩 쓰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봉사자 말에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어르신들의 진지함은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것이다. 매주일 성

경쓰기는 물론 깊이기 위한 준비물부터 강의록 듣는 자세는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들을 능가한다. 그렇기에 봉사자들은 준비에 소홀할 수 없다.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강의실에 모인 어르신들이 반도 되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비 때문에 오지 못하셨구나 하면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자매님들께 인사하러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어르신들이 반찬 만드는 일을 거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매주 식사 봉사하는 자매들에게 미안해서 도와주고 계셨다고 한다. 강의를 끝날 무렵 어르신 한 분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들어오셨다. 늦은 이유를 듣고서 봉사자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를 놓치시고는 늦는 줄 알면서도 결석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 빗속을 한 시간 남짓 걸어서 오

셨다는 것이다. 이곳이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겠는가 하시면서 늦으신 것에 미안함을 표현하셨다. 또 다른 분은 일일 채 마치지 못했지만 깊이는 시간만큼은 참석해 ‘눈도장’을 찍으러 오셨다며 환하게 웃으셨다. 이런 모습에서 봉사하는 기쁨을 느낀다.

점심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천상 잔치에 초대받은 것 같다. 젊은 자매님들의 정성이 들어 있으니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다. 집에서 혼자 점심을 드셔야 하는 어르신께서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하신다. 요즈음은 어르신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복지관들이 있긴 하지만 성당에서 운영하는 이 성경공부반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하시는 어르





신들을 보면서 용기를 갖는다. 성경공부 반을 담당하는 분과장에게 적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성의 표시라고 꼬깃꼬깃 접혀진 돈을 내놓으시는데 어르신으로서는 아주 큰돈이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만이 아니라 반찬거리를 가져오시며 주방 봉사까지 하시는 모습에 절로 힘이 날 수밖에 없다.

깊이는 시간에는 그동안 어느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신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에는 함께 슬퍼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에는 함께 웃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그러다 마무리를 재촉하는 봉사자에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천진한 모습이 하늘나라 같다.

젊은 자매들이 처음엔 강요에 의해 봉사를 시작했는데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봉사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점심식사 시간에는 본당 주변의 직장에 다니는 자매님들이 와서 설

거지를 해준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대부분의 본당에서 성경대학을 개설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점심식사 봉사자를 구하는 일이다. 단체별로 강제로 떠

사를 하면서 본당 단체들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고 자랑하시는 신부님도 계시다.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공부 봉사라고 하지만 이 공부를 통해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 이 봉사를 통해 하늘나라를 맛본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힘들고 아픔이 밀려와도 봉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몫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다. 부족한 봉사자 선발과 더 나은 봉사를 위한 노력, 봉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구의 지원과 수녀님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며 성바오로팔수도회 수녀님들과 전국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히 머무르시길 기도한다.

하느님 학교에 다녀요

최명애(효주 아네스) · 부산교구 반여성당

신나는 성경공부 학교에 다닐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못 다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움츠리게 되고, 기도할 때도 앞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하느님 학교’를 열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희 성당은 신심 깊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서로의 어려움을 잘 챙기는 곳입니다. 개강 미사 후 주임 신부님께서 저희들이 낸 교재비 전액을 환불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당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언제 어른답게 살았던가 반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하느님께서 그러한 저를 책벌하시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기에 용기를 냅니다. 사람이 나이 먹었다고 가던 길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 저에게 주어진 몫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힘

은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겠지만 살면서 경험한 많은 것을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기쁠 때 이웃을 바라보는 자세도 달라지겠지요. 하느님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이웃과 함께 기쁜 삶이 되도록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줄을 놓아야 다른 줄을 잡을 수 있는 곡예사같이 내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모두 서먹해 하며 ‘늙은이들이 무엇을 배워?’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욕이 생기면서 기쁘게 만나 서로의 안부며 숙제를 챙기는 모습이 초등학교 학생같이 정말 보기가 참 좋습니다. 더욱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영명축일도 모르고 지내는 분이 많은데 매달 축일을 챙겨주시니 참 좋아하시네요. 재주 많은 자매님이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가르쳐 주는 춤과 노래를 기쁘게 따라하면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답니다. 수녀님의 설명을 들으며 DVD를 볼 때 조용해지는 모습, 각 반장님이 실

천사향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행복이 아닐까요?

저희 성당에는 성모님 같이 포근히 감싸주시는 두 분의 수녀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미사 시간, 한 자매님이 머리를 감고 왔는지 혼잣말로 ‘아이, 추워!’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께서 조용히 당신의 목도리를 가져다 그 자매님을 덮어주시는 모습은 성모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수녀님 두 분이 계시기에 성경학교가 더욱 더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식들이 있어도 다들 늘

어서 외로운 것이 만연한데 저희 성당의 노인 성경대학은 참으로 필요한 학교이죠. 매주 성모회 회원들이 정성어린 간식과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우리들의 식성에 맞춘 나물이며 모든 반찬이 어느 뷔페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마치고 나오는 모든 분들이 너무도 행복해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모인 저희 성당 어르신 성경대학이 나날이 발전하여 더 좋은 배움터가 되기를 바라며, 바쁜 일 제쳐두고 각 반을 맡아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자렛 예수 - 유년기

김선동(루카) · 성바오로 신학영성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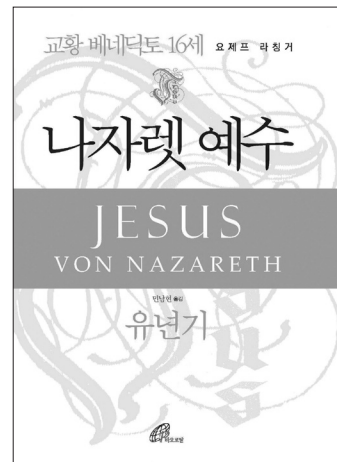
이 책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예수의 세례부터 거룩한 변모까지 다룬 「나자렛 예수1」(박상래 신부 옮김)과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를 다룬 「나자렛 예수2」(이진수 신부 옮김)에 이어 출간됐지만 제3권이라기보다는 앞선 두 권의 책을 이해하기 위한 작은 현관과 같다.”고 밝힌다.

우선 저자는 마태오복음서와 루카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세례자 요한과 예수 탄생의 예고, 동정녀 출산,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 동방박사들의 경배 등 예수의 출신에 담긴 신화적 요소들을 성서신학적으로 철저히 탐구하여 복음서 기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임을 밝힌다.

또한 저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실존과 구원사에 대한 심오한 묵상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이해와 감동의 길로 이끈다. 아래에서는 중요한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감동들을 다시 음미하고자 한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요한 19,9)

예수의 출신에 대한 물음은 그의 깊은 근원, 곧 진정한 실체에 대해 묻는 것으로



써, 요한복음서의 여러 중요한 곳에 등장할 뿐 아니라 공관복음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 네 복음서의 목적은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마태오는 예수와 족보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하며 처음부터 예수와 출신에 대한 물음을 정확한 빛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반면에 루카는 예수와 족보를 공생애의 초기에 놓음으로써 예수와 공적으로 소개한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족보를 제시하지 않지만 장엄한 방식으로 ‘출신’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시한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14) 예수와 근원, 그의 ‘출신’은 ‘한처음’ 자체이고 모든 것이 비롯되는 근본 원인이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왔다. 그는 하느님이다. 우리에게 오신 이 ‘한처음’은 인간존재의 새로운 방식을 열어준다.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와 근원이 그들의 근원이 된다.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이제 모든 이가 하느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동정녀의 출산-신화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사람들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한 예수 잉태 사화를 이방인의 범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신이 어머니에게 육체적으로 다가가 관계를 맺는다. 곧 제우스와 알크메나의 결합을 통해 헤라클레스가 태어났고, 제우스가 다나와 결합함으로써 페르세우스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처럼 말이다. 그러나 복음서 이야기들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유일성과,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차이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어떠한 혼동도 없고 신과 인간이 혼합된 인물도 없다. 여기에는 매우 겸손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놀라운 위대한 이야기가 서술되었다. 하느님께 문을 연 마리아의 순명 이야기다. 하느님의 말씀, 그분의 영이 그녀 안에 아들을 창조하셨다. 마리아의 순명의 문을 통해 그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하게 내맡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새 아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인간 마리아의 자유로운 ‘예’에서 비롯되었다. 동정 마리아에게 일어난 예수와 잉태와 탄생은 우리 신앙의 근본 요소이고 희망의 빛나는 신호다.

‘박사들’(현자들, 마고이magoi)은 누구인가?

마태오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묘사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박사들에 대한 마태오의 사화 안에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지혜는 사람들이 길을 향해 떠나게 하는 힘이다. 곧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지혜다. 동방의 현자들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길을 떠나는 인류를 대표하며, 모든 역사를 통해 계속되는 행진을 시작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 영혼의 내적 열망, 그리스도를 향한 종교들과 인간 이성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성전에서의 열두 살 예수

루카는 예수의 신비가 독특한 방식으로 빛을 내는, 유년기에 관련된 소중한 전승을 보존했다. 루카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곤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소년들은 열세 살 때부터 순례 의무가 적용되지만 그들은 점차 이 규정에 익숙해져야 했기에 열두 살에 순례를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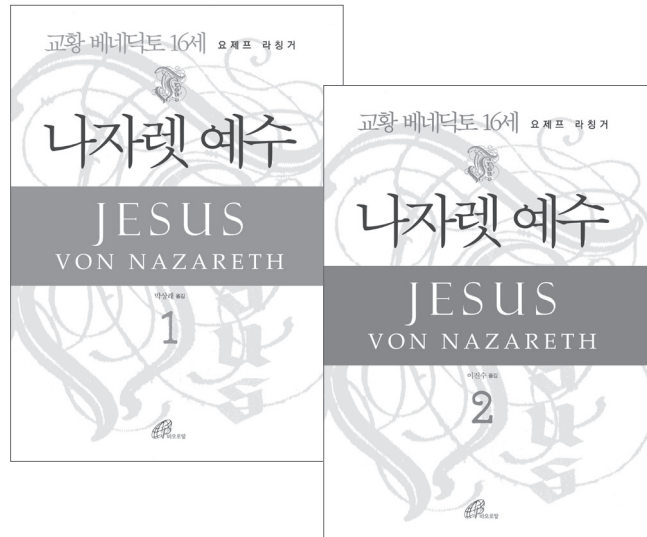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 예수가 다른 이들과 함께 길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다. 예수의 부재로 인한 고통과 어둠의 날들로서의 위기감이 어머니의 말에서 느껴진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루카 2,48) 어머니의 물음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인상적이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루카 2,49)

이 대답에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우선 예수는 “저는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요셉이 저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분, 하느님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 곁에 있습니다.” 예수의 신적인 아들의 신분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한 예수는 자신이 따라야 할 ‘의무’에 대해 말 씀하신다. 아들, 아이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만 한다’. 루카는 여기에서 ‘데이dei’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복음서들에서 예수가 순명으로 아버지의 뜻에 내맡김

을 표현하는 곳에 언제나 나오는 말이다. 예수는 많은 고난을 겪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마르 8,31 참조) 베드로의 신앙고백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해야만 한다.’가 벌써 시작의 순간에도 유효하게 작용한다. 예수는 아버지 곁에 ‘계셔야’ 하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무례한 자유행위처럼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그분의 자식으로서의 순명의 표현인 것이다. 그분은 부모를 거스르는 반항아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는 그 순명으로 순종하는 분으로서 성전에 계신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루카 2,51) 예수가 행한 큰 순명이 더욱 빛을 발한 순간 이후에, 그는 자기 가족의 일상, 곧 단순한 삶의 검손과 지상의 부모에 대한 순명으로 되돌아온다.

이로써 교회의 신앙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분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실제로 명확해진다. 우리는 한 차원과 다른 차원 사이의 내밀한 상호작용을 결정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이는 신비로 남는다. 그러나 열두 살 예수의 짧은 사화에서 이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유년기 사화는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그분의 모습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나눔터 1]



학생이 평가자에게

안녕하세요? 평가자님! 오랜만에 안경 너머로 책을 읽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오늘 새벽 4시에 잤습니다. 모두 끝내고 싶어요. 아침에 작성한 문제집을 훑어보니 엉뚱한 답으로 채워져 있어서 다른 종이에 다시 써서 붙였습니다. 낮에는 일하느라 밤에 공부하다 보니 글씨도 너무 엉망이 되었으니 양해해 주세요. 주관식 답이 잘못된 것은 정답을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평가자가 학생에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긋하신 연세에 안경 너머로 성경을 읽고 계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낮에 일하시라 밤에 공부하시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고생 보다는 더 큰 은총이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선 용기를 내어 성경공부를 시작하신 자매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세상 일보다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처럼 공부하시다 보면 참 좋은 몫을 택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와 선행 뒤에 두는 것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봉사와 선행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데 하느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시작하신 길에 주님의 은총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하며, 큰 도움은 되어드리지 못하지만 일 년 동안 좋은 길동무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알찬 부활시기 보내십시오.

[나눔터 2]



학생이 평가자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운 학기에 만나 뵈 새 평가자님은 어떤 분이실지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사도 하고, 방황도 하고, 거기다 처음 읽어 보는 예언서와 교훈서가 어려워 문제집 제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괴롭고 섭섭했는데, 이번 학기는 좀 잘해보려고 다짐해 봅니다. 신약성경은 재미도 있어서 더 잘 읽게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이맘때쯤 사순시기는 제게 참 어두운 시기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2월 말에 첫 시험이 있는데, 이때쯤 불합격 소식을 듣고 좌절했었거든요. 올해는 작년의 격렬한 방황 때문에 아예 도전도 하지 않아 내년을 기약하려고요. 그래도 2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며, 봄마다 찾아오는 부활시기를 준비하며 저도 부활을 기다려 봅니다.

평가자님께서 어떤 일상을 보내시는지, 문제집이 돌아올 날을 기다립니다. 평가자님께서 제 문제집을 받으실 때는 부활시기일 것 같아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평가자가 학생에게

+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스텔라 자매님!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문제집을 보니 기쁘고 흐뭇합니다. 자매님의 정성스런 글씨와 나눔터를 읽으면서 마치 자매님과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매님의 마음이 참 예쁘네요. 오늘 부활대축일 낮미사 때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십자가 없이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자매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눔터 3]



학생이 평가자에게

섬세한 충고와 좋은 말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 열기를 무척 두려워하는 제가 손 글씨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평가자님께서 전해주시는 좋은 말씀을 읽게 되어 참 신기합니다. 아직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참 행복하네요. 나만의 신기루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지원이 첫영성체가 잘 끝났어요. 주임신부님께서 첫영성체하는 아이들의 가족 모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게 해주셔서 가슴 벅찼습니다. 6월 30일에는 남편과 큰딸이 견진성사를 받아요. 저에게는 숙제였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축복을 쏟아주시네요. 저에게 늘 천사 같은 큰딸이 “엄마, 성경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어?” 하고 물었어요. 이런 엄마로 변화될 수 있게 늘 준비해 주시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할게요.



평가자가 학생에게

하느님께서 자매님을 참 사랑하시네요. 축하드려요. 언제나 그 행복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성모님처럼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지금처럼 항상 하느님 안에 머무르세요.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할 거예요.

다시 한 번 지원이의 첫영성체와 남편 분과 큰딸님의 견진을 축하드립니다.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힘을 얻습니다

최정화(멜라니아) · 이러닝학습 1학년

따뜻한 말씀과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과 성경말씀과 가까워져 참 좋습니다.

가게를 하며 성경공부를 하다 보니 집안 대소사며 이런저런 세상살이가 분주해 복습도 제대로 못하고 기말고사를 치렀네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며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니 시작한 것이 욕심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과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자꾸 일이 많다는 핑계를 만들고 있네요. 컴퓨터에 가끔 들어가 교우들의 글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하려는 힘을 받기도 합니다.

세차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맘며느리 역할도 해야 하고, 성격 급한 남편과 하루 종일 같이 일하며 서로 마주본다는 건... 제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핑계가 자꾸 생기고 복습이 부족하고 시험에서 많이 틀리고 이해력이 부족해 보여도 어여쁘게 봐주세요. 분주한 삶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일로 만들고 싶습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서가족 모임에 다녀왔어요

강옥님(아녜스)·이러닝학습 1학년

지난 주 금요일 저녁, 용기를 내서 광주교구 통서가족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지역 형제자매들이라 통하는 것도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는 말씀들을 듣고서 염려했던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지식의 나눔이 아닌 삶을 통한 나눔이 너무 좋았고, 처음 만났지만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인지라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참 복된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 근심은 모두 하느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또 한 번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서 그리고 서원에서 모임을 하니까 보고 싶었던 책도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용기 내게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할게요.

해외에서도 공부해요

이원혜(가타리나)·이러닝학습 1학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요하네스버그에, 하나는 케이프타운에 있습니다. 제가 속한 요하네스버그 공동체는 어린이들까지 해서 120~130명 정도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만의 성전도 지었어요. 현재 인천교구 소속 손광배 도미니코 신부님이 저희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 과분한 신부님이시죠. 저희 복입니다. 영성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훌륭하신 신부님이시라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부님 계실 때 많이 배우고 신앙을 단단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덕에 작년에는 최기산 주교님께서 방문해 주셨어요.

저는 1992년에 한국에서 세례를 받고 1994년에 남아공으로 왔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부족한 게 별로 없어서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그야말로 발바닥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IMF 때 평생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느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절실해져 인터넷이나 신부님들 강의 CD 등을 계속 들었습니다. 마침 손 신부님이 이곳으로 오시면서 더더욱 불이 붙었지요.

어린이들 첫영성체를 맡고 있는데 부족한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다 보니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성당에 게시된 통신성서 포스터를 보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티켓 발권 때문에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면 세상 것을 다 해주신다는 성경말씀을 잡고 티켓 발권 업무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겁니다. 잘 도와주세요.

남아공은 다른 아프리카에 비하면 환경이 아주 좋은 편이나 한국에 비하면 아직은 많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인터넷 사정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 평화방송 강의를 들으려면 아주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통신성서 공부할 때도 일단 켜놔다가 한참 있다 보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평화방송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디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프린트해 놓고 동영상 보고, 나중에 오디오로 복습합니다. 6년 동안 잘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재미있는 성경공부

김미자(루치아) · 이레닝학습 3학년

찬미예수님!

비좁은 병실 창가 보호자 침대에서 겨울엔 창문으로 들어오는 냉기에, 여름엔 내리쬐는 열기에도 기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말 없이 맑은 눈망울로 조용히 응원해 주는 동생 안나가 옆에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안나는 19여 년의 투병생활로 힘들었을 텐데도 항상 평온한 표정과 예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며 그 고통을 이겨내고 제가 공부할 때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

안나는 6월 9일 새벽 2시 30분 언니인 저에게는 자유를 주고, 주위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는 인체 조직을 기증(저녁 8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인체조직 수술)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안나는 국가공무원이었는데 출근길에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버스와 충돌하여 장애 1급1항 식물인간처럼 살았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보상비는 여러 곳에 기증하였습니다.

기말고사를 봐야 하는데 갈등이 많았습니다. 6월 11일에 안나의 장례미사를 드리고 매일 위령미사를 봉헌하기로 하고 86세 어머니와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 조카들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말고사 기간 마지막 날인 6월 16일에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어머니 눈치 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안나는 하늘나라에서 언니 공부 잘한다고 기뻐하겠지요?

아직도 성경공부를 망설이는 형제자매님들! 주저하지 말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이중섭 신부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지 저는 동영상은 거의 열 번 정도 보며 공부했습니다. 물론 강의자료를 프린트해 놓고 보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감미롭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 어느 애정소설이 이보다 더 재미있을까요?

바오로딸 이리닝학습 강사 신부님과 수녀님들, 튜터 님, 같이 공부하는 형제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저 루치아를 이 세상에 있게 창조해 주신 하느님! 찬미와 영광받으소서. 저는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삶이길 간구합니다. 아멘!

졸업생 평가자 모임

졸업 후 평가 봉사를 통해 말씀의 사도직에 협력하는 졸업생 평가자들을 위한 모임이 3월 16일(토) 알베리오네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는 주제로, 성바오로팔수도회 이정아(가우텐시아) 수녀님이 영상 음악 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4,1-42)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주님의 목마름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거 콰터 신부님의 성화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습니다. 성바오로 신학영성 과정을 수료하고 처음으로 구약입문 과정을 평가하는 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있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안에 머문 이 모임에는 입문 평가자 13분, 중급 평가자 18분, 성바오로 신학영성 평가자 9분이 참석했습니다. 짧은 하루 일정이었지만 서울·인천·수원·대전·청주·공주·대구·군산·전주·광주에서 참석해 주신 평가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학교 평가자 모임

통신성서교육원 수녀들과 신학생 평가자들과의 만남 및 오리엔테이션이 4월 12일 인천 신학교를 시작으로 4월 15일 대구, 4월 16일 부산, 4월 22일 광주, 4월 24일 서울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신학교 공부와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우편 학생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는 학사님들·부제님들을 만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올해 처음으로 평가하는 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신학생은 대학원 1학년부터 평가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구약 입문 1년을 시작으로 신약 입문, 구약 중급, 신약 중급 순으로 학년을 올라가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평가자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산



서울



인천



광주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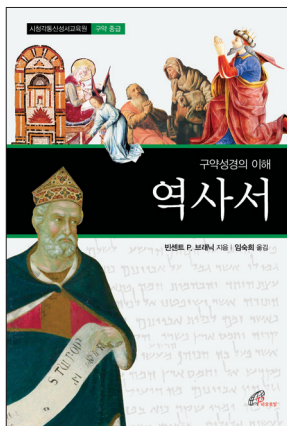


서울(부제반)

구약 중급 역사서 새 교재 출간

2002년 이후 사용해 오던 중급 과정 교재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교육원은 약 1년간 검토와 준비의 시간을 거쳐 빈센트 P. 브래닉이 저술한 「구약성경의 이해-역사서」를 번역하여 3학년 2학기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문제집 개편을 위한 교재 연구팀을 2012년 9월 결성했습니다. 연구팀에는 교육원 책임자 오 헬레나 수녀와 오랫동안 편집 사도직에 헌신해 오신 표 테클라 수녀, 역자인 임숙희(레지나) 박사, 교육원 연구실 장수정(마리아) 선생님, 성바오로 신학영성 과정에 재학 중인 김선동(루카) 형제님과 이미지(가타리나) 자매님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각자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고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월 2회 모임을 통해 토론하고 심의하는 작업을 거쳐서, 2013년 6월 10일 새 교재와 문제집(3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교재의 장점은 본문의 역사적인 접근만 아니라, 성경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곧 앞에서 해설한 본문의 주제를 요약하고 신학을 소개하며, 각 권의 메시지를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보다 더 쉽고 깊이 있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한 많은 지도와 도표들이 본문에 나오는 지형에 대한 구절을 이해하도록 돕고 복잡한 족보와 왕들의 연대기, 찾아보기 등은 구체적인 이름과 사건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교재는 이미 구약 중급 과정을 마친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도 필요한 참고서가 될 것이며, 이리닝 학생들에게는 좋은 부교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교재와 달리 교육원 학생이 아닌 이들도 전국 바오로딸 서원과 성바오로 서원, 인터넷 서점(www.pauline.or.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이어서 4학년 1학기 교재 개편을 시작하여 「구약성경의 이해-예언서」를 번역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집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계속 가졌습니다. 이 교재는 2014년 1월 중순경에 학생들에게 발송되며,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바오로딸 서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국 통서가족 피정

10월 12~13일 지리산 피아골 피정집에서 전국 통서가족 피정이 있었습니다. 동서울·서서울·중서울·동수원·서수원·인천·의정부·대전·마산·전주·광주·부산·제주교구와 미국에서 온 두 분까지, 총 88명의 통서가족이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광주 가톨릭대학교 김영권 신부님의 가톨릭 전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강의, 그림으로 묵상하는 묵주기도와 다락방 기도 에 이어 나눔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황선주(토마스 아퀴나스) 총동문회 회장님과 김영화(세례자 요한)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통서가족을 위해 수고해 주실 서정대(안드레아) 회장님, 정수옥(마르코) 총무님과 함께 각 교구 통서가족 모임이 활성화되어 ‘말씀 안에 하나’ 되는 통서가족이 교구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천교구 노인사목부 성경봉사자 교육과정 개설



인천교구 복음화사목국 산하 노인사목부가 교회 내 노인대학 성경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인천교구 부평2동성당 교육관에서 9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16주간)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30개 본당의 1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석했습니다. 윤일마 수녀는 「마르코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면서 또한 평신도 양성과 봉사자의 자세, 교수법과 교안작성 및 발표, 실습평가, 어르신들을 위한 미디어 활용과 레크리에이션 등 봉사자의 자질을 폭넓게 배양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학기별로 신구약, 4복음서 등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노년기 마지막 배움터에서 어르신들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익히도록 돕고, 봉사자들이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성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사목부는 매 학기 수료증을 발부하며, 6학기 모두 수강 시 ‘노인대학 성경봉사자 자격증’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춘천교구 가평성당 어르신 성경학교 설립

춘천교구 가평성당 성 마리아 성경학교 개강미사가 9월 14일 봉헌되었습니다. 평소 노인사목에 관심이 많던 이유수(요아킴) 신부는 가평본당에 부임하면서, 어르신 성경학교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고 어르신을 위한 새로 나는 성경공부 전담 수녀를 초대하는 등 성경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알베리오네 센터에서 8주에 걸쳐 ‘마태오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봉사자 교육을 수료한 본당 출신의 자매님과 다른 세 명의 봉사자, 그리고 최 마리 미켈리나 수



녀가 개강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의 적극적인 홍보로 70여 분의 어르신이 신청한 가운데 시작한 성 마리아 성경학교는 토요일 11시 전체 강의 후 반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점심식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당 주보이신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의 보호 아래, 날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말씀을 공부하는 통신성서 학생들이 노인 사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2013년 장학생 현황

연수회 파견미사 때 학생들이 봉헌한 봉헌금과 후원금, 전국 바오로딸 서원의 재소자들을 위한 봉헌함을 통해 모아진 장학금은 재소자들과 출소한 후에도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 가정 형편상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등록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이 성경공부를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고 신앙생활에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소자 장학생은 전국 교도소의 교정사목 전담자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일반 장학생은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추천, 각 교구 통서가족 회장의 추천을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성바오로 신학영성	계
재소자장학생	20	4	13	6	3	8	6	60
일반장학생				1			1	2
계	20	4	13	7	3	8	7	62

연수회 소식

	과정	날짜	장소	강사
1월	구약 입문 2학기(1차)	1.12-13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김정훈 신부님
	구약 입문 2학기(2차)	1.26-27	알베리오네 센터	박병규 신부님
	신약 입문 2학기	1.19-20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송창현 신부님
2월	성바오로 신학영성 수료	2.16	알베리오네 센터	전영준 신부님
	신구약 중급 졸업	2.23-24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황인수 신부님
5월	구약 중급(예언서)	5.25-26	살레시오회 관구관	이중섭 신부님
7월	구약 입문 1학기	7.27-28	살레시오회 관구관	염철호 신부님
	신약 입문 1학기	7.13-14	살레시오회 관구관	김영남 신부님
9월	성바오로 신학영성	9.28	알베리오네 센터	김정완 신부님
10월	신약 중급(요한복음서)	10.26-27	살레시오회 관구관	백운철 신부님

2013년부터 연수회 일정이 2박 3일(통학, 숙식 선택)에서 1박 2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수회 참석자들의 현황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학년을 올라갈수록 서로간의 친교가 쉽게 이루어져 화기에애한 분위기 안에서 신부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6년 과정을 마치는 친구약 중급 졸업 연수회에 두 쌍의 부부가 참석해 졸업생들의 축하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현재 3학년인 모니카와 실비아 자매는 각기 대전과 서울에 살면서 매년 연수회에서 참석하고 있으며, 베드로와 바오로 형제는 동생이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형님에게 소개한 경우입니다. 성바오로 신학영성 수료 연수회에 참석한 ‘남학생 부대’는 8년 과정 동안 여덟 분 모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연수회 전에 1박 2일의 성지순례나 피정을 통해 돈독한 신앙과 우정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이러닝 학생들은 연수회 참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배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고, 연수회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 많아 참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연수회가 통신성서의 꽃’이니, 다른 분들도 꼭 참석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졸업 연수회 ‘감사의 밤’에는 통서가족 총동문회 회장님과 총무님 이하 임원진 네 분이 참석해 축하해 주셨습니다. 준비한 다과와 함께 그룹별 ‘통신성서’ 4행시 발표 등 지금까지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졸업식에서는 관례대로 6년 과정을 마치는 분들 중 최연장자에게 드리는 ‘알베리오네 상’을 76세 이현우(치릴로) 형제님께, ‘진리상’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공부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희망차고 기쁘게 살아오신 양승숙(효주 아녜스) 자매님께, 그리고 6년 동안 문제집 제출 기간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공부하신 다섯 분의 형제자매님들께 ‘말씀상’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88학번으로 27년 만에 졸업하시는 자매님께도 작은 상품을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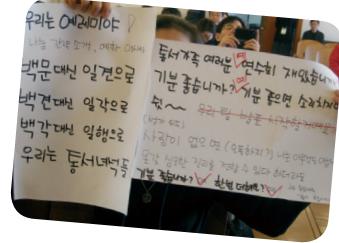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연수회 장소였던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5월 구약 중급 연수회부터 장소를 옮겨 살레시오회 관구관에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구약 중급 연수회를 실시했는데, 이중섭 신부님께서 예언서를 주제로 쉽고 명료하게 강의해 주셨을 뿐 아니라 강의 틈틈이 호른 연주로 학생들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연수회 갤러리 및 소감



구약입문 2학기 1차 연수회



구약입문 2학기 2차 연수회





신약입문 2학기 연수회



신구약 중급 졸업 연수회



✎ 성바오로 신학영성 수료 연수회



✎ 구약중급 연수회









성바오로 신학영성 연수회



신약중급 연수회



II 연수회 참석 소감

전국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과의 만남과 대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틀 동안 신부님의 강의 내용이 바다의 등대 같았어요. 겨울 연수도 기대해 봅니다. (1학년 바울리나)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각자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울고, 웃고... 경험은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며 치유의 힘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학년 데레사 수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수회에 다녀왔습니다. 신부님을 통해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나니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당신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학년 로사)

지난 연수 때 참 행복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추천해 주신 「아주 특별한 순간」 잘 읽고 있어요. 모든 분들의 열정이 느껴졌던 시간이었어요. 2학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2학기 연수에 꼭 참석하고 싶어요. (1학년 글로리아)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는 시간도 아주 좋았고, 신부님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성경공부하면서 구약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산책을 하면서 풀 한 포기, 바람결 하나에도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1학년 안젤라)

평소 궁금해 하던 것, 몰랐던 부분을 신부님의 강의로 정리가 되어 참 좋았습니다. (1학년 세레나)

저에게 연수는 단순한 공부의 마무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2학년 가타리나)

거기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꿈만 같 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깊이 느꼈고, 수녀님들의 사랑과 기쁘 게 시간을 채워주시는 모습들이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유아세례 받고 냉담 한 적은 없으나 무료하게 신앙을 이 어온 저에게 처음 꽃핀 불입니다.

(1학년 레오니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많은 힘 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각지에 서 오신 분들의 열정! 놀라웠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알도록 해주신 김영남 신부님, 저희들을 위해 이리저리 바 뵈었던 수녀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 립니다.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2학년 가브리엘)

삶의 갖가지 풍요로운 선물 보따리들을 풀어 공유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파스카 예절 등 모든 면에서 섬세함과 기쁨으로 하느님을 발산하시는 수녀님들 안에서, 순수 함과 열정으로 그분을 쏟아내신 신부님과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각양각색의 좋은 주님을 뵈내시는 학생 여러분들 안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귀중하 고 소중한 보물들을 보여주시고 만져도 보게 해주신 복된 연수회였습니다. 연수회 덕분 에 무시무시한 더위도 견딜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1학년 레티치아 수녀)

신부님 강의도 듣고, 파스카 예식도 해보고, 인생의 경험이 아주 풍부하 신 어르신들과 나눔도 했답니다. 나름 많은 고민과 슬픔이 있었는데, 제 것 은 아주 작고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세상 누구보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생각만 했지 만요. (1학년 엘리사벳)

신약입문 연수회에 참석해 참으로 좋 은 경험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공부 한 것을 한층 깊이는 시간이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수녀님들을 만나는 기쁨도 컸답니다. 그래서인지 2학기 공부에 임하는 마 음이 더욱 감사하고 경건해지네요.

(2학년 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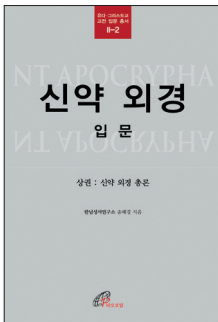
책 소개



[아주 특별한 순간 – 안토니오 신부의 치유픽정]

V. 안토니오 | 류해욱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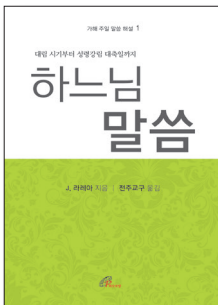
성령의 은총이 넘치는 안토니오 신부의 피정 강론집.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와 비유, 자신의 깊은 묵상과 체험에서 깨달은 것을 쉽고 단순하게 나눈다. 강론과 함께 해당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며 기도하면 피정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



[신약 외경 입문(상·하-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II)]

송혜경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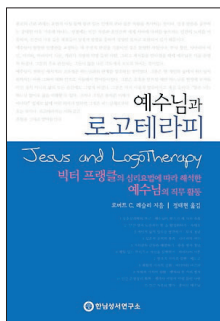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여러 저작물 중 신약성경이나 사도교부 총서로 분류되지 않은 작품들인 '신약 외경'을 소개하는 입문서. 정경과 외경을 함께 읽으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그리스도교의 시작을 고찰하며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다.



[하느님 말씀(가해 주일 말씀 해설1)]

J. 라레아 | 전주교구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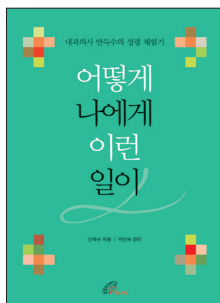
“교회의 모든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교가 그렇듯이 성경들로 양육되고 규정되어야 한다.”(계시헌장) 이 책은 전례주기에 따라 주일 독서와 복음(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 병행), 이에 대한 해설과 묵상을 담고 있으며, 말씀을 토대로 전례시기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사제들에게는 말씀 중심의 훌륭한 강론 자료가 되며, 주일 말씀의 깊은 영성적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도 유익한 자료이다.



[예수님과 로고테라피]

로버트 C. 레슬리 | 정태현 | 한남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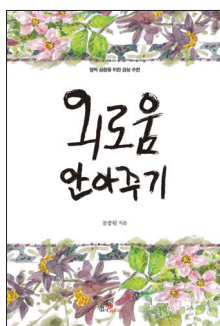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보다는 삶을 변화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셨고, 하느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다. 이 책은 예수님의 여러 일화 중 11가지를 선택해 로고테라피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실현하고 그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데 근본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며 그러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안득수 | 바오로딸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한 내과 의사의 신앙체험담. 낮에는 환자에게 인술을 베풀고, 밤에는 성령 세미나를 통해 사람들의 영적 질병까지 치유하고 갈등을 풀어주며 체험하고 하느님 현존의 기적들이 감동적이다.



[외로움 안아주기]

문종원 | 바오로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행병인 외로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감정 가운데 외로움은 감정적·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외로운 기분을 식별하고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외로움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며 심리적이고 영성적인 처방을 알려준다.

사도 바오로가 마태오 공동체에 보내는 서간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오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마태오 공동체에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힘을 주실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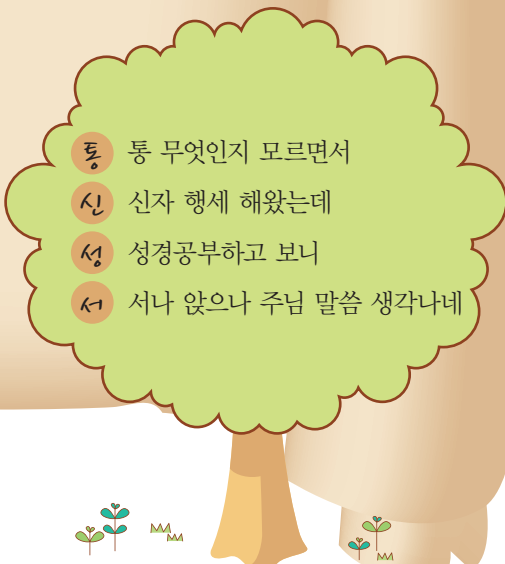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김 마리아 편이다.”, “나는 황 안젤라 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인간의 지혜 위에 두지 말고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십시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소통하십시오. 소통이 없는 곳에는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개방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모습도, 다른 사람의 모습도 받아들이십시오. 혹여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닌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이며 충실한 일꾼인 오 헬레나와 그의 동료 루치아나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여러분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나 바오로가 천상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 신약입문 1학기 연수회 그룹발표 중에서

- 
- 통 통 무엇인지 모르면서
 - 신 신자 행세 해왔는데
 - 성 성경공부하고 보니
 - 서나 앞으나 주님 말씀 생각나네



발행 : 2013년 11월 30일

펴낸데 :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142-704 서울 강북구 오현로 7길 34

등록 제7-123호 1994. 3. 30

전화 : 02)944-0819~0824 FAX 987-5275

이메일 : uus@pauline.or.kr

홈페이지 : <http://uus.pauline.or.kr>

카페 : <http://cafe.daum.net/junim510>

이 책은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 통신성서교육원 회지이며 비매품입니다.



시 청 각
통신성서
입문과정
입학안내

- 구비서류 입학원서
- 원서 교부처 교육원 홈페이지,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 서원
- 접수 마감 매년 1월 25일까지
- 자 격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소유자
- 접 수 142-704 서울 강북구 오현로 7길 34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 문의 전화 02) 944-0819~0824
- 홈페이지 <http://uus.pauline.or.kr>

우편학습 각 과정 소개



〈신구약성경 입문 과정〉

구약과 신약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성경신학적인 차원에서 신구약성경 전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신구약 2년 과정.

이 기간 동안 성경 본문에 친숙해지는 것과 성경 전반에 관한 역사·지리·환경을 배우고 성경이 어떻게 씌어졌는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인지를 배우게 된다.

〈신구약성경 중급 과정〉

성경입문의 토대 위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성경말씀을 해독하도록 이끌어 주는 4년 과정.

〈성바오로 신학영성 과정〉

성바오로 시대의 문화와 종교상황, 각 서간의 중요내용을 공부하며 기도와 삶의 통합을 이루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2년 과정.

〈공부 방법〉

매월 해당되는 교재와 성경본문을 읽고 문제집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육원에 제출한다. 제출된 문제집은 평가자의 평가가 끝나면 다시 받아볼 수 있으며 이때 평가자의 평가 및 보충 설명을 통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